

# 黃庭內景經에 관한 研究

## 六章에서 十四章까지

李秉書 · 尹暢烈\*

### I. 緒 論

長生成仙을 追求한 道教는 醫術을 매우 重視하여 道教徒들은 醫學理論을 계승 흡수하고 실천하여 韓醫學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단 韓醫學과 구분되는 것은 神仙이 되는 것을 目的으로하여 修行術과 鍊丹術, 呪術이 존재하였으며 이를 종합 체계화하여 宗教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道教의 樣態는 크게 神仙術과 巫術의인 것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神仙術은 神仙이 되는 것을 目的으로하는 다양한 行法을 가리키는 것으로 藥物의 合成에 의한 金丹의 製造(外丹), 道의 體得과 神과의 交感을 행하는 守一 存思法, 自身의 몸을 丹鼎으로 삼고 精氣神을 三藥으로 삼아 丹을 修練하는 內丹術이 이에 속한다. 內丹術의 대표적 經典으로서 魏晉時代에 著述된 《黃庭經》을 꼽을 수 있는바, 이는 人體의 百脈과 臟器 및 五官이 각각 그것을 主하는 神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근거하여 醫學의 臟腑理論과 결합시켰으며 七言韻文形式으로 道教 上清派의 전형적 修鍊法인 '存思法'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流轉된 《黃庭經》에는 王羲之가 筆寫한 《黃庭外景經》과 東晉 魏夫人이 傳한 《黃庭內景經》이 있으나<sup>1)</sup> 上清派의 經典은 《內景經》이었으며 이는 東晉 上清經 系

統經典의 母胎가 되었고 이를 頂點으로 계승발전되어 後代 道教書籍<sup>2)</sup>에 영향을 미쳤다.

《黃庭經》이 갖는 基本思想은 人體는 하나의 완전한 神들의 世界이며 身體의 諸器官은 이 神들이 머무는 宮殿樓閣城門 등의 형태로 認識되어 있고 人間의 生命活動 또한 神들에 의해 統制된다. 그러므로 人間은 自己의 體內에 있는 神들의 存在와 그 기능에 대해 明確한 자각을 갖고 存思內觀의 法에 의해 神과 그들의 宮殿樓閣을 들여다 봄으로서 神들과 交感하면서 身體機能을 완전히 調和시키면 外部로 부터의 邪惡한 存在의 侵入을 막고 疾病을 治癒하게 되며 不老長生을 얻고 더 나아가 自身의 存在를 神의으로 높일 수가 있게 된다. 특히 體內 神들의 名字, 服色, 居處의 狀況을 說明함에 韓醫學의 解剖學的 知識과 類似한 部分이 많은 것으로 보아 道教(上清派 道教)와 韓醫學理論이 혼합된 道書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註釋書는 매우 다양하게 著述되었는데<sup>3)</sup> 이 가운데 《道藏精華》中の 唐代 務成子 註의 《上清黃庭內景經》, 唐代 梁丘子 註의 《黃庭內景玉經註》, 明代 李一元 註의 《黃庭內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教室

1) 《黃庭經》의 成書 年代: 《外景經》은 王羲之 筆寫本과 대부분의 七言句가 同一하고, 王羲之 本の 末尾에 "永和十二年五月二十四日五山陰縣寫"라고 되어 있어 晉 穆帝 永和十二年(西紀 356年)以前이고, 《黃庭內景經》은 書頭に "上清紫霞虛皇前 太上大道玉宸君"이라하여 '太上道君'이라는 稱號가 나타난 것이 東晉 後半期의 《上清經》에 보이고, 沐浴章三十六에 "卽授隱芝大洞經 十讀四拜朝太上"이라하여 《大洞真經》以後에 성립된 것이 確實하니, 東晉 興寧二年(西紀 364年)以後 太和五年(西紀 370年)以前 太和元年(西紀 366年)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2) 《太上素靈洞玄大有妙經》, 《太微帝君二十四神回元經》, 《上清九丹上化胎精中記經》, 《上清九真中經》, 《真誥》, 《登真隱訣》 등이 있다.

3) 道藏에서 볼수 있는 《黃庭經》을 적는다면, 《正統道藏》에는 《太上黃庭內景玉經》, 《太上黃庭外景玉經》, 《黃庭內景玉經註》, 《黃庭內外玉經經解》, 《黃庭內景五臟六腑補瀉圖》, 《修真十書》중에, 《黃庭內景玉經註》, 《黃庭內景玉經註》가 있고, 《道藏集要》中에는 《太上黃庭內景玉經》, 《黃庭內景經》, 《黃庭外景經》, 《太上黃庭中景經》이 있고, 《雲笈七籤》에는 《上清黃庭內景經》, 《太上黃庭外景經》이 있고, 《道藏精華》에는 《太上黃庭內景玉經》, 《黃庭內景玉經註》, 《黃庭內景玉經註》, 《太上黃庭外景註》, 《黃庭內景經》, 《黃庭外景經》 등이 있다.

景經》, 清代 澹園冷謙 註의 《太上黃庭內景玉經》을 底本으로하여 研究 發表하게 되었다.

## II. 研究方法

本經의 全盤의인 理解를 돕고 內容을 比較, 研究하기 위하여 原文에 縣吐를 하고 原文에 대한 國譯을 하였고, 校勘, 字句解를 加하였으며, 各家注를 引用하여 縣吐하였고, 마지막으로 各章에 관한 學術的인 考察을 하였다.

가. 原文은 梁丘子의 《黃庭內景玉經註》를 基準으로 삼았다.

나. 懸吐는 傳來의 方式을 原則으로 하였다.

다. 國譯은 原文의 懸吐에 充實하도록 直譯을 爲主로 하되 各 注釋들 中에서 가장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內容을 爲主로 약간의 意譯을 加하였다.

라. 校勘은 各 引用 文獻 中에서 原文의 글자가 다른 것을 조사하여 전체적 文義에 비추어 보 아 가장 妥當하다고 思料되는 것을 決定하여 提示하였다.

마. 字句解는 原文 中에서 難解한 部分에 대하여 各 注家들의 意見과 各 解說書들의 意見들을 爲主로 比較 說明하였다.

바. 各家注는 아래에 提示할 引用 文獻의 註釋을 시대순으로 懸吐하여 提示하였고, 懸吐 以外에 注釋 內容의 理解에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部分들은 脚注로 處理하여 提示하였다.

사. 考察은 各家注의 內容들을 土臺로 各章의 內容들에 대해서 總括하여 整理하였다.

아. 考察 中에 內容을 理解하는데 必要하다고 생각되는 引用文獻에 대한 內容과 各家에 대한 解說이나 注釋의 補充 說明은 脚注로 處理하였다.

자. 本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은 《 》, 校勘은 〈 〉, 字句解는 ( ), 各家注는 [ ], 각주는 )로 表示하였다.

### (參考註解書)

時代	著者	書籍	備考
唐	務成子	《上清黃庭內景經》	이하 《務本》
唐	梁丘子	《黃庭內景玉經註》	이하 《梁本》
明	李一元	《黃庭內景經》	이하 《李本》
清	澹園冷謙	《太上黃庭內景玉經》	이하 《澹本》
1991	周眉聲	《黃庭經醫疏》	이하 《周本》

本 論考에 參考한 《黃庭經》의 注解書는 위의 圖表와 같다.

## III. 研究內容

### 天中章<sup>4)</sup>第六

#### 【原文】

天中之岳<sup>1)</sup>精謹修면  
靈<sup>1</sup>宅既清玉帝遊요  
通利道路無終休하면  
眉號華蓋覆明珠하고  
九幽日月洞空無라  
宅中有眞常衣丹하니  
審能見之無疾患이라  
赤珠靈裙華綺粲하니  
舌下玄膺生死岸이라  
出清入玄二氣煥하니  
子若遇之昇天漢이라

#### 【解釋】

天中之岳(脾)을 잘 수련하면 맑아져서 玉帝와 함께하게 되고 經脈을 通하여 숨이 없으면 華蓋와 같은 肺와 明珠와 같은 心이 어두운 가운데 日月이 비치듯 하리라. 心神이 丹色の 옷을 입고 있으니 자세히 存思하면 疾病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心神의 빛이 燦爛하니 舌下의 津液通路는 生死의 갈림길(岸)이라. 青色과 玄色の 두 氣運이 빛나니 그대가 만일 이 道를 만난다면 天漢에 오리라.

#### (字句解)

1)天中之岳: [梁註]에는 鼻라 하고, [李註]에는 脾土라고 함.

#### 〈校勘〉

1. 靈: 李本에는 “雲”으로 되어 있음.

#### [各家註]

#### 天中之岳精謹修

[梁註]:天中之岳은 謂鼻也라 一名天臺니 消魔經에 云 鼻欲數按其左右하야 令人氣平이라하니 所謂 灌溉中岳을 名書帝錄이라<sup>5)</sup>

#### 靈宅既清玉帝遊

[梁註]:面爲靈宅이니 一名尺宅이라 以眉目鼻口之所居故로 爲宅也라 修之清通則神仙矣라 洞神經에 曰 面爲尺宅이라고하고 字或作赤澤이라

#### 通利道路無終休

[梁註]:太素丹景經曰 一面之上은 常欲兩手摩拭之라 高下隨形하야 不休息則通利耳目鼻口之氣脈이

4) 李註에는 雲宅章이라 함.

5) 뜻이 상세하지 않음

라

[李註]:土爲天之中岳이니 萬化 | 由土而生이러 人身이 一小天地요 脾土 | 卽天之中岳也라 能謹修 中岳而脾之雲宅旣清則天道를 得而大化不息하야 天人合一하야 出王遊行하야 與玉帝遊而萬化萬事 | 莫不通達順利而悠久無疆矣니 何終休之有리오

**眉號華蓋覆明珠**

[梁註]:明珠는 目也라

**九幽日月洞空無**

[梁註]:五辰行事訣에 云 眉上直入一寸이 爲玉璫 紫闕이요 左日右月이라 又玉曆經에 云 太清上에 有五色華蓋九重하니 人身에 亦有之하니 當存目童 如日月之明也라

**宅中有眞常衣丹**

[梁註]:眞은 謂心神卽赤城童子也라 亦名眞一 亦名赤子 亦名子丹 亦名眞人이니 心存見之하야 常存 目前이면 與心相應이라 衣丹은 象心氣赤色也라

**審能見之無疾患**

[梁註]:元陽子曰 常存心神則無病也라

**赤珠靈裙華綺絜**

[梁註]:玄膺之象色이니 外諭也라

[李註]:肺爲華蓋而覆心神은 猶眉分八彩而覆瞳珠 也 且肺葉이 如眉兩分하고 心懸肺下에 其光照 | 似明珠而內照外觀에 雖處九幽之地而如日月麗空하야 洞燭萬古에 無所不見이라 心神이 不失是心宅에 有眞主也라 心之色이 赤故로 曰常衣丹이라 審能見 此明珠則無疾患而赤珠靈裙華彩燦爛하야 天君寧諡 到 百體從令矣라

**舌下玄膺生死岸**

[梁註]:內指事라 玄膺者는 通津液之岸也라 本經 到 云 玄膺은 氣管이니 受精府라

**出清入玄二氣煥**

[梁註]:謂吐納이니 陰陽二氣 | 煥然著明也라

**子若遇之昇天漢**

[梁註]:人能善遇吐納之理則成天仙矣라

[李註]:舌主心生하니 下有玄膺之竅以生津液而通 乎膀胱이라 知之者 | 生하고 不知者 | 死故로 曰 生死之岸이라 津來出靑은 發源去處에 水源至清也 요 津去入玄은 歸源來處에 天氣玄虛也라 故靑玄二 氣煥然光華하니 若能知此生死之岸이면 是曰遇之而 修持不懈하야 醍醐<sup>6)</sup>灌頂이면 天漢可昇矣라 蓋心 爲脾母니 心脾均精而謹修之功이 斯全矣라

6) 醍醐(제호): 牛酪(버터)위에 영긴 기름모 양의 맛이 섞 좋은 액체, 轉하여 佛性 또는 不法의 妙理. 또 우수한 인물의 비유.

**【考察】**

‘天中之岳精謹修’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天中之 岳을 鼻라하여 鼻欲數按其左右하야 令人氣平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土爲天之中岳이니 萬化 | 由 土而生하니 人身이 一小天地요 脾土 | 卽天之中岳 이라하여 脾土를 天之中岳이라 보았다.

‘靈宅旣清玉帝遊’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面爲靈 宅이니 一名尺宅이라 以眉目鼻口之所居故로 爲宅 也라 修之清通則神仙矣라하여 面을 靈宅으로 본데 반해 [李註]는 靈宅(雲宅) 또한 脾土로 보았다.

‘通利道路無終休’에 대해서 [梁註]는 一面之上은 常欲兩手摩拭之라하여 [李註]보다는 구체적인 解 說을 하고 있다.

‘眉號華蓋覆明珠’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明珠는 目이라했고, [李註]에서는 肺爲華蓋而覆心神한 것 이 眉分八彩而覆瞳珠한 것과 같다 하여 華蓋와 明 珠를 각각 肺와 心으로 풀이 하였다.

‘九幽日月洞空無’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五辰行 事訣을 인용하여 眉上直入一寸이 爲玉璫<sup>7)</sup>紫闕이 요 左日右月이라 하고 玉曆經을 인용하여 太清上 에 五色華蓋九重이 있고 人身에도 있으니 目童을 日月之明과 같이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李註]에 서는 心懸肺下함에 光照가 明珠와 같아서 內照外 觀함에 비록 九幽之地에 처하더라도 日月이 虛空 에 있어서 洞燭萬古함에 無所不見함과 같다하였 다.

‘宅中有眞常衣丹’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眞은 心神은 赤城童子니 眞一이라고도 하고 赤子라고도 하며 子丹이라고도 하고 眞人이라고도 하니 心存 見之하야 常存目前이면 與心相應이라하고 衣丹은 心氣赤色을 象한 것이라 했다. [李註]에서는 心神 이 心宅을 잃지 아니함에 眞主가 있다했고 心之色 이 赤하므로 항상 丹色의 옷을 입는다 했다.

‘審能見之無疾患’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元陽子 의 말을 인용하여 常存心神이면 無病한다 했고, [李註]에서는 明珠를 잘 살펴보면 疾患이 없어진 다 했다.

‘赤珠靈裙華綺絜’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玄膺之 象色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赤珠靈裙의 華彩가 燦爛하야 天君寧諡에 百體가 從令한다 했다.

‘舌下玄膺生死岸’에 대해 [梁註]에서는 玄膺은 通津液之岸이라하고 玄膺은 氣管이니 受精府라 하였고, [李註]에서는 舌主心生하니 下有玄膺之竅以 生津液而通乎膀胱이라 知之者 | 生하고 不知者 |

7) 玉璫紫闕

死故로 曰生死之岸이라했다.

‘出清入玄二氣煥’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吐納을 말한 것으로 陰陽二氣가 煥然著明한다 했고, [李註]에서는 津이 來하는 것이 靑한 이유는 發源去處의 水源이 至清하기 때문이고, 津이 去함에 玄한 이유는 歸源來處의 天氣가 玄虛하기 때문이라 했다.

‘子若遇之昇天漢’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吐納之理를 만나면 天仙이 될 수 있다했고, [李註]에서는 修持不懈하여 醍醐灌頂이면 天漢을 可昇한다 하고 전체적인 대의를 心爲脾母니 心脾가 均精이면 謹修之功이 이에 온전할 것이라 하여 心을 強調하였다.

至道章<sup>8)</sup>第七

【原文】

至道不煩決存眞이니  
泥丸百節皆有神이라  
髮神蒼華字太元이요  
腦神精根字泥丸이며  
眼神明上字英玄이요  
鼻神玉壘<sup>1)</sup>字靈堅이며  
耳神空閑字幽田이요  
舌神通命字正倫이며  
齒神嵒鋒<sup>1</sup>字羅千이로대  
一面之神宗泥丸이니  
泥丸九眞皆有房하고  
方圓一寸處此中하니  
同服紫衣飛羅裳이라  
但思一部壽無窮이며  
非各別住俱腦中하야  
列位次坐向外方하니  
所存在心自相當<sup>2)</sup>이라

【解釋】

至極한 道는 번거롭지 않아서 眞을 保存하는데 있다. (眞은 곧 神인데) 泥丸과 百節에 모두 神이 있으니 髮神의 名은 蒼華이고 字는 太元이며, 腦神의 名은 精根이고 字는 泥丸이며, 眼神의 名은 明上이고 字는 英玄이며, 鼻神의 名은 玉壘이고 字는 靈堅이며, 耳神의 名은 空閑이고 字는 幽田이며, 舌神의 名은 通命이고 字는 正倫이며, 齒神의 名은 嵒鋒이고 字는 羅千인데, 얼굴의 모든 神은 泥丸을 받들며 泥丸의 九眞은 모두 房이 있고, 方圓一寸의 이곳에 머물며 모두 紫色의 나뭇기는

옷을 입고 있는데 다만 이곳을 存思하면 壽命이 無窮할 것이다. 각각 별도로 거처하지 않고 腦中에 있으면서 바깥을 向하여 있으니 存思함이 마음에 있으면 저절로 서로 마땅함을 얻으리라.

(字句解)

1) 壘: 언덕 룡

〈校勘〉

1. 鋒: 李本에는 “峰”으로 되어 있음.

2. 當: 李本에는 “應”으로 되어 있음.

【各家註】

至道不煩決存眞

[梁註]: 專心則至라

[李註]: 存其眞이면 保其身이요 泄其眞이면 傾其身이라 故至道不煩이니 訣在存眞이라 君子 | 知眞而存之하야 道與俱存하고 小人은 味眞而不存하야 道與俱亡이라

泥丸百節皆有神

[梁註]: 神者는 妙萬物而爲言이니 因象立名則如下說이라

[李註]: 頂門泥丸은 元神出入處也니 有神主之天地一太極也라 百節이 亦如泥丸하야 皆有神하니 在物物에 一太極也라 泥丸以喻眞은 卽鷄子以喻混沌意라

髮神蒼華字太元

[梁註]: 白與黑을 謂之蒼이요 最居首上故로 曰太元이라

[李註]: 語髮之常則少黑而老白이요 語髮之神則顛白而返黑故로 名蒼華라 且髮者는 血之餘요 人之血은 天之水也니 天一生水는 太極之始 五行之元也라 故로 字太元이라

腦神精根字泥丸

[梁註]: 丹田之宮은 黃庭之舍요 洞房之 주요 陰陽之根이라 泥丸은 腦之象也라

[李註]: 頂之正中爲泥丸宮이요 腦乃精之根故로 腦神名精根이라 惟嬰兒初食乳時에 純陽未喪하야 頂門穴軟이라가 年華에 至遇乳中穀氣 | 令兒漸壯 血肉充實하야 陰塞陽門하야 精根減矣라 故嬰仙脫化에 必俟頂門復軟하야 得純陽之體故로 字泥丸이라

眼神明上字英玄

[梁註]: 目은 諭日月이 在首之上故로 曰明上이라 英玄은 童子之精色也니 內指事也라

[李註]: 眼神名明上은 以精明之識으로 照鑒此太上無上大道也라 眼은 肝神所屬이니 英靈旁達하야

8) 李註에는 泥丸章이라 함.

無微不燭하니 道之奧妙 | 悉在大觀이라 故字英玄이  
니 且知在行前이니 明非上著工乎아

**鼻神玉壘字靈堅**

[梁註]:玉壘之骨이 象玉也라 神氣通天出入不竭  
故로 曰靈堅이라

[李註]:鼻神名玉壘은 崗阜曰壘이니 鼻隆於面하  
야 阜骨脆瑩이 如玉且鼻也하야 莫逃察焉이라 鼻乃  
肺神所屬이요 肺屬金하니 堅莫如金故로 字靈堅이  
라 胎之成形이 先結乎鼻하고 及形死而毀도 亦鼻先  
脫也라 首成而首毀하고 首得而首失은 理數自然이  
라

**耳神空閑字幽田**

[梁註]:空閑幽靜이라야 聽物則審이라 神之所居  
故로 曰田也라

[李註]:耳神名空閑은 聲從外來하면 耳中原無留  
滯하야 入則聞 去則寂하니 何空閑如之리오 耳乃腎  
神所屬이요 耳爲腎竅요 腎爲下田故로 字幽田이라

**舌神通命字正倫**

[梁註]:咽液以舌호대 性命得正이라야 其五味 |  
各有倫理라

[李註]:舌神名通命字正倫은 蓋咽津納氣는 以舌  
通靈이라야 別正五味에 各有倫理하고 舌乃心神所  
屬이요 心爲性命之元이라 又善辨辛酸甘鹹苦之正味  
하야 以明五臟損益之序故로 名與字를 皆不易焉이  
라

**齒神嶠鋒字羅千**

[梁註]:牙齒堅利 | 如劍嶠刀鋒이 摧羅衆物而食  
之者也라

[李註]:齒神名嶠峰은 齒之堅利 | 如劍嶠刀峰이  
且排布羅列食物하야 俱從此咀嚼故로 字羅千이요  
又亦腎神所屬이니 腎髓竭則齒落하고 腎水足則齒全  
하야 齒落復生하니 能補腎還精也라

**一面之神宗泥丸**

[梁註]:腦中丹田은 百神之主라

**泥丸九眞皆有房**

[梁註]:大洞經에 云 三元이 隱化則成三宮하니  
三三如九라 故로 有三丹田에 又有三洞房하야 合上  
三元하니 爲九宮이라 中有九眞神하니 三九二十七  
神氣 | 相和하야 人當存之라하고 亦謂天皇九魄이  
變成九氣하고 化爲九神하야 各居一洞房이라하니라

[李註]:髮腦眼鼻耳舌齒는 皆一面之神이니 分之  
雖七이나 然皆宗乎腦之泥丸하야 乃統之而萬物一太  
極也라 眼屬肝 鼻屬肺 耳屬腎而齒亦屬腎 舌屬心而  
髮亦屬心이나 脾無所屬而獨居故로 曰泥丸九眞이요  
然皆有眞神存焉 故曰皆有房이라하니 此를 析之면

而物物 各具一太極也라

**方圓一寸處此中**

[梁註]:房有一寸故로 腦有瓣也라

**同服紫衣飛羅裳**

[梁註]:九眞之服이 皆象氣色이라 飛는 猶輕也라

**但思一部壽無窮**

[梁註]:存思九眞이 不死之道라

**非各別住俱腦中**

[梁註]:丹田之中이 衆神所居라

**列位次坐向外方**

[梁註]:神繞丹田而外其面하야 以扞不祥이라 八  
素經에 云 眞有九品하야 向外列位則當하니 上眞은  
上向하고 高眞은 南向하고 太眞은 東向하고 神眞은  
西向하고 玄眞은 北向하고 仙眞은 東北向하고  
天真은 東南向하고 靈眞은 西南向하고 至眞은 西  
北向이라 夫眞者는 不視而明하고 不聽而聰하고 不  
言而正하고 不行而從이라하니라

**所存在心自相當**

[梁註]:心存玄眞이면 內外相應이라

[李註]:房之方圓一寸而神處此一寸之中하니 雖各  
一其房이나 然同根底於脾하니 固皆同服黃庭內人之  
紫華衣而飛雲羅裳也라 但一部에 有一部之眞하야  
能全一部之眞하고 亦足以永無窮之壽라 然皆脾土以  
植其性命之源而統宗會元이 非能各部別住嬰仙이요  
脫化에 必從頂門出現하야 功驗이 俱在腦中故로 內  
雖列位次坐而生剋有序 承制有倫이나 然有諸中이면  
微諸外하야 誠不可掩而眞神自向外方顯化矣라 蓋脾  
之功이 固大而匪心以生之則脾之化 | 息矣니 所賴以  
存者 | 又在乎心焉이라 心之眞을 不失則脾之眞이  
自全而母子相應 火土機 | 神矣라 故至道不煩而要在  
存眞이니 內而肝肺與腎이요 外而耳目與鼻齒與髮이  
니 固當一部에 各存一部之眞이라 然脾乃眞之根底  
也요 腦乃眞之發見也而心尤脾之樞焉이니 存眞者 |  
又當留神於心焉이 可也라

**【考察】**

‘至道不煩決存眞’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專心則  
至라 했고, [李註]에서는 存其眞이면 保其身하고  
泄其眞이면 傾其身하므로 至道는 不煩하니 訣在存  
眞이라했다.

‘泥丸百節皆有神’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神은  
妙萬物而爲言이라했고, [李註]에서는 頂門泥丸은  
元神出入處니 有神主之天地一太極이라하고 百節이  
또한 泥丸과 같아 모두 神이 있으니 物物에 一太  
極이라했다.

‘髮神蒼華字太元’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白과 黑을 蒼이라하고 가장 上에 있으므로 太元이라했고, [李註]에서는 語髮之神則顛白而返黑故로 名蒼華라하고 髮은 血之餘이고 人之血은 天之水와 같으니 天一生水는 太極之始며 五行之元이므로 太元이라한다 했다.

‘腦神精根字泥丸’에 대해 [梁註]에서는 丹田之宮은 黃庭之舍이고 洞房之主며 陰陽之根이라하고 泥丸은 腦之象이라했고, [李註]에서는 腦가 精之根이므로 腦神名이 精根이고 嬰仙脫化할때에 頂門이 軟해진 뒤에 純陽之體를 얻으므로 泥丸이라한다 했다.

‘眼神明上字英玄’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目은 日月이 首之上하므로 明上이라하고, 英玄은 童子之精色을 비유한 것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眼神名이 明上인 것은 精明之識으로 太上無上大道를 보기 때문이고, 字가 英玄이라 한 것은 眼은 肝神所屬이니 英靈旁達하여 無微不燭하니 道の 奧妙함이 大觀에 있기 때문이라 했다.

‘鼻神玉壘字靈堅’에 대해 [梁註]에서는 鼻骨이 象玉하므로 이름이 玉壘이고, 神氣가 通天出入不竭하므로 靈堅이라했고, [李註]에서는 鼻神의 名이 玉壘인 것은 岡阜曰壘이니 鼻隆於面하여 阜骨脆瑩이 玉且柔하기 때문이고, 鼻는 肺神所屬이고 肺屬金하니 堅莫如金하므로 靈堅이라했다.

‘耳神空閑字幽田’에 대해 [梁註]에서는 空閑이 幽靜해야 소리를 들으면 잘 듣게 되므로 幽를 쓰고 神之所居이므로 田을 썼다고 했고, [李註]에서는 耳神의 名을 空閑이라한 것은 聲從外來하면 耳中原無留滯하기 때문이고, 耳는 腎竅이며 腎이 下田이므로 字를 幽田이라했다.

‘舌神通命字正倫’에 대해 [梁註]에서는 咽液以舌함에 性命이 得正해야만 五味가 倫理가 있으므로 命을 通命, 字를 正倫이라 했으며, [李註]에서는 咽津納氣는 以舌通靈해야 別正五味함에 各有倫理하고, 舌은 心神所屬이고 心은 性命之元으로서 善辨辛酸甘鹹苦之正味하여 五臟損益之序를 밝히므로 名과 字를 이렇게 지었다고 했다.

‘齒神嵒鋒’<sup>9)</sup>字羅千’에 대해 [梁註]에서는 牙齒의 堅利함이 劍嵒刀鋒이 摧羅衆物함과 같으므로 名과 字를 이와같이 했다하고, [李註]에서는 齒神의 名이 嵒鋒인 것은 齒의 堅利함이 劍嵒刀鋒과 같기 때문이고, 모든(千) 飲食物을 咀嚼하므로 羅千이라 字를 지은 것이라 했다.

‘一面之神宗泥丸’에 대해 [梁註]에서는 腦中丹田은 百神之主라 했고, [李註]에서는 髮腦眼鼻耳舌齒은 모두 一面之神인데 宗乎腦之泥丸하니 萬物이 一太極임을 보여준다 했다.

‘泥丸九眞皆有房’에 대해 [梁註]에서 天皇九魄이 變成九氣하고 化爲九神하여 各居一洞房이라했다.

‘方圓一寸處此中’에 대해 [梁註]에서 房有一寸이므로 腦에 瓣이 있다 했고,

‘非各別住俱腦中’에 대해 [梁註]에서 丹田之中이 衆神所居라 했다.

‘列位次坐向外方’에 대해 [梁註]에서는 神繞丹田하면서 外其面하여 以扞不祥하는데, 眞有九品하여 向外列位則當하니 上眞은 上向하고 高眞은 南向하고 太眞은 東向하고 神眞은 西向하고 玄眞은 北向하고 仙眞은 東北向하고 天真은 東南向하고 靈眞은 西南向하고 至眞은 西北向이라 했다.

‘所存在心自相當’에 대해 [梁註]에서는 心存玄眞이면 內外相應한다 했고, [李註]에서는 脾는 眞之根底이고 腦는 眞之發見이며 心은 脾之樞가 되니 存眞者는 마땅히 心에 留神해야 한다고 했다.

#### 心神章<sup>10)</sup>第八

##### 【原文】

心神丹元字守靈이요  
肺神皓華字虛成이며  
肝神龍煙字含明이니  
鬢鬱導煙主濁清이요  
腎神玄冥字育嬰이며  
脾神常在字魂停이요  
膈神龍曜字威明이니  
六腑五臟神體精이요  
皆在心內運天經하니  
晝夜存之自長生이라

##### 【解釋】

心神의 名은 丹元이고 字는 守靈이며, 肺神의 名은 皓華이고 字는 虛成이며, 肝神의 名은 龍煙이고 字는 含明이니 울창한 숲(鬢鬱)에 불이 불어 연기가 나는 것과 같이 힘이 강하고 淸濁을 主하며, 腎神의 名은 玄冥이고 字는 育嬰이며, 脾神의 名은 常在이고 字는 魂停이며,

膈神의 名은 龍曜이고 字는 威明이니 五臟六腑의 神과 體가 맑게 되는 것은 모두 心內에서 天經(黃庭經을 指稱한 것이 아닌가 함)을 運行(익힘)함에 있으니 밤낮으로 保存하면 저절로 長生하게

9) 校勘: 李註本에는 峰으로 되어 있음.

10) 李本에는 ‘天經章’이라 함.

되리라.

[各家註]

**心神丹元字守靈**

[梁註]:內象諭也라 心爲臟腑之元이요 南方火之色이 棲神之宅이라 故曰守靈也라

[李註]:心爲斗柄 神爲運氣요 心之色赤爲一身之主故로 神名丹元이라 操則存 舍則亡하니 一念外馳에 馬驅千里라 虛靈不昧하야 具萬事而妙衆理하니 感卽應 觸卽通하야 知覺穎悟ㅣ何靈如之리오 故字守靈이니 守言其功而靈言其神이라

**肺神皓華字虛成**

[梁註]:肺爲心之華蓋라 皓는 白也라 西方金之色이니 肺色이 白이요 其質이 輕虛故로 曰虛成也라

[李註]:肺爲華蓋니 其色白 其神清故로 神名皓華라 天이 以清虛로 居上而化生萬物하고 肺以清虛로 居尊而覆庇五內故로 字虛成이라

**肝神龍煙字含明**

[梁註]:肝位는 木行이니 東方青龍之色也라 於藏에 主目하고 日出東方 木生火故로 曰含明이라

**腎鬱導煙字濁清**

[梁註]:鬱鬱은 木象也니 得火而煙生하고 得陽而氣生하니 清則目明하고 濁卽目暗이라 有別本에 無此一句라

[李註]:肝은 木也며 東方青龍也라 主恚怒而氣不可遏이 如煙之突於外而不可禦하며 含血榮於目故로 神名龍煙而字含明이라 然不能存眞而肆怒縱煙則肝眞內濁而鬱鬱障明其目하야 必眊하고 若能存眞而戒怒戢煙則肝神內清而導散澄徹하야 其目必瞭故로 目之清明昏濁이 又係於鬱導焉이라 修身者ㅣ又當知此第一戒라

**腎神玄冥字育嬰**

[梁註]:腎屬水故로 曰玄冥이요 腎精爲子故로 曰育嬰也라

[李註]:腎爲玄水之鄉而居於幽暗之所故로 神名玄冥이요 天一生水하니 人得一以生而嬰孩之所以育者도 育乎此也요 仙得一以成而嬰仙之所以育者도 育乎此也라 故로 字育嬰而爲天地之根 生人之本 神仙之祖라

**脾神常在字魂停**

[梁註]:脾는 中央土位也라 故曰常在卽黃庭之宮也라 脾磨食消하야 神康力壯故로 曰魂停이라

[李註]:脾乃中央土之位요 土旺於四季而非若木火金水之各專其位故로 神名常在라 人七日不食則死하니 脾納穀氣 倉廩之官 五味出焉이라 得食則生 不

食則死而魂賴之以停留於世故로 字魂停이니 魂者는 人之所以爲人之神也라

**膽神龍曜字威明**

[梁註]:膽色青黃故로 曰龍曜요 主於勇扞故로 曰威明이니 外取東方青龍雷震之象者也라

[李註]:膽乃肝之腑요 肝爲青龍이니 膽與連枝하야 共房而中正之官 決斷出焉故로 隨肝龍以顯其曜而決斷之才ㅣ威明兼著故로 神名龍曜而字威明이라

**六腑五臟神體精**

[梁註]:資保一身하야 廢一不可故로 曰神體精이라 心肝脾腎脾爲五臟이요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爲六腑니 所言腑者는 猶府邑之府하야 取中受物之義故로 曰腑也라 臟者는 各是一質하야 共藏於身故로 謂之臟也라 言三焦者ㅣ多矣而未的其眞하니 蓋心肝脾三臟之上係管之中爲三焦라하고 中黃經에 云肺首爲三焦라하니 當指其所也라<sup>11)</sup> 又據五方之色컨대 脾爲中黃이니 應爲五臟之主而今共以心爲主者는 何也요 答曰心居臟中하야 其質虛受也니 夫虛無者는 神識之體 運用之源故로 徧方而得其主하고 動用而獲其神이니 不可以象數言이며 不可以物類取니라

[李註]:心肝脾肺腎은 五臟也요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는 六腑也니 能存其眞則神之體ㅣ精矣요 不能存其眞則神之體ㅣ不精矣라 大力量人이 要常使五六之神으로 常存眞於房而顯化於泥丸則精明煥發하야 與道合眞이라 五炁朝元하야 三華聚頂이면 何丹之不成이며 天帝之不可與遊哉리오 蓋天下之道ㅣ中而已矣요 得天下之道ㅣ得天下之中而已라 脾土爲中黃 胃土爲中宮하야 居中以運四方之樞하야 乃心腎脾肝之綱領也니 清濁이 主於脾하고 三焦命脈이 係於胃로대 人多不知善調中道而精者ㅣ喪矣라 此保其體者之鮮也니 況永年乎아 今人知疾而守中黃以治三焦則專一而病本澄除矣요 執中以御四極卽居黃庭以妙衆理요 五六亦各得其主矣니 何動用之不獲其神哉아

**皆在心內運天經**

[梁註]:五臟六腑ㅣ各有所司하야 皆有法象이나 同天地順陰陽은 自然感攝之道라 故曰運天經也라

**晝夜存之自長生**

[梁註]:依上五神服色을 思存不捨ㅣ不死之道也라 仙經에 曰 存五臟之氣면 變爲五色雲하야 常在頂上하야 覆蔭一身하고 日居於前 月居於後 左青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라하니 卽去邪長生之道也라

[李註]:然心者는 道之官<sup>12)</sup>也요 天者는 道之樞

11) 三焦에 관한 독특한 見解임.

12) 글자가 정확치 않음.

也니 心外無道하고 道外無心하니 天人合一이면 何天非人이며 何人非天가 其吃緊工夫 | 又在一心之內하야 運天道之經常而晝夜長存하야 積之久 習之熟하야 自強不息則天行之健을 君子 | 得之以爲心而自然純亦不已하야 可以長生矣라 然此 | 乃以人合天之學이니 尤爲第一著工夫니라

### 【考察】

‘心神丹元字守靈’에 대해 [梁註]에서는 心은 臟腑之元이고 南方火色이 神宅에 居하므로 字를 守靈이라 하고, [李註]에서는 心之色赤하며 一身之主이므로 神名이 丹元이고 操則存 舍則亡하고 虛靈不昧하므로 字를 守靈이라하니 守는 功을 말함이고 靈은 神靈스러움을 말한 것이다.

‘肺神皓華字虛成’에 대해 [梁註]에서는 肺는 心의 華蓋이고 皓는 白色이니 西方金色이어서 名을 皓華라 하고 質이 輕虛하므로 字를 虛成이라 하고, [李註]에서는 肺는 華蓋로서 白色이고 神이 淸하므로 名이 皓華이고 淸虛함으로 居尊하여 覆庇<sup>13)</sup>五臟하므로 字를 虛成이라 했다.

‘肝神龍煙字含明’에 대해 [梁註]에서는 肝位는 木行으로 東方靑龍之色이므로 名을 龍煙이라하고, 主目하고 日出東方하며 木生火하므로 字가 含明이라 했다.

‘翳鬱導煙主濁淸’에 대해 [梁註]에서는 翳鬱은 숲이 무성한 모양으로서 得火而煙生하고 得陽而氣生하니 淸則目明하고 濁則目暗한다 했고, [李註]에서는 肝은 木이며 主恚怒하여 氣를 막을 수 없음이 煙氣와 같으며 含血하여 榮於目하는데 不能存眞하여 肆怒縱煙하면 肝眞이 內濁하여 翳鬱이 障明其目하여 必眊하고 能存眞하여 戒怒戢煙하면 肝神이 內淸하여 導散澄澈한다 했다.

‘腎神玄冥字育嬰’에 대해 [梁註]에서는 腎屬水하므로 名은 玄冥이고 腎精이 子息을 생성하므로 字는 育嬰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腎이 天地之根 生人之本 神仙之祖라 했다.

‘脾神常在字魂停’에 대해 [梁註]에서는 脾는 中央土位이므로 常在는 黃庭之宮이며 脾磨食消하여 神康力壯하므로 字를 魂停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人이 七日不食則死하니 脾納穀氣하여 得食則生 不食則死하니 魂이 賴之以停留於世하므로 字를 魂停이라하니 魂은 人之所以爲人之神(사람이 되는 바의 神)이라 했다.

‘膽神龍曜字威明’에 대해 [梁註]에서는 膽色이

靑黃하므로 名이 龍曜이고 主於勇扞하므로 字가 威明이니 東方靑龍雷震의 象을 취한 것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膽이 中正之官으로서 決斷이 出하므로 隨肝龍하여 顯其曜하고 決斷之才는 威明이 兼著하므로 神名은 龍曜이고 字는 威明이라 했다.

‘六腑五臟神體精’에 대해 [梁註]에서는 資保一身하야 廢一不可하므로 神體精이라했고, [李註]에서는 能存其眞이면 神之體가 精하고 不能存其眞이면 神之體가 不精한다 했다.

‘皆在心內運天經’에 대해 [梁註]에서는 五臟六腑가 各有所司하여 모두 法象이 있으나 同天地順陰陽은 自然感攝之道이므로 運天經이라 했고, [李註]에서는 心은 道之官이고 天은 道之樞니 心外無道하고 道外無心하니 天人合一이면 在一心之內하여 運天道之經常이라 했는데, 筆者는 天經을 黃庭經을 指稱한 것이라고 思料되어 “六腑五臟神體精皆在心內運天經”을 “五臟六腑의 神과 體가 맑아지려면 마음속으로 黃庭經을 익힌다”는 뜻으로 풀고 싶다.

‘晝夜存之自長生’에 대해 [梁註]에서는 위의 五神服色을 思存不捨함이 不死之道이라하고 仙經을 인용하여 五臟之氣를 보존하면 變爲五色雲하여 常在頂上하여 覆蔭一身하고 日居於前 月居於後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하니 去邪長生之道라 했고, [李註]에서는 晝夜長存하여 積之久 習之熟하여 自強不息하면 天行之健을 본받으면 自然히 純亦不已하야 可以長生한다고 했다.

### 肺部章第九

#### 【原文】

肺部之宮似華蓋하니  
下有童子坐玉闕이라  
七元之子主調氣하니  
外應中嶽鼻臍<sup>1)</sup>位하고  
素錦衣裳黃雲帶라  
喘息呼吸體不快면  
急存白元和六氣라  
神仙久視無災害하고  
用之不已形不滯리라

#### 【解釋】

肺는 꽃 덮개(받침)와 같으니 아래에 童子가 玉闕에 앉아있네. 七元之子가 呼吸을 가다듬으니 밖으로는 中岳(崑崙山), 鼻, 臍에 應하고 하얀 衣裳에 黃色 띠를 두르고 있네. 或 喘息症이 생겨서 몸이 불편하거든 급히 白元을 생각하여 六氣를 조

13) 덮을 비



화할지니라. 神仙은 오래도록 (肺神을) 지켜봄에 災殃이 없고, 끊임없이 숨에 身體의 氣運이 막힘이 없으리라.

〔校勘〕

1. 臍: 李本에는 '齊'로 되어 있음

〔各家註〕

**肺部之宮似華蓋**

〔梁註〕: 金宮也라 肺在五臟之上하니 四垂爲字也라

**下有童子坐玉闕**

〔梁註〕: 童子名은 皓華라 肺形이 如蓋故로 以下言之라 玉闕者는 腎中白氣 上與肺連也라

〔李註〕: 肺有六葉하니 形如華蓋라 童子는 肺神也니 元神也라 坐玉闕은 指神之居於肺宮而言也니 一名玉廬라

**七元之子主調氣**

〔梁註〕: 元陽子曰 七元之君이 負甲持符하야 辟除凶邪而布氣七竅하니 主耳目聰明이라하니 七元은 七竅之元氣也라

**外應中嶽鼻齊位**

〔梁註〕: 中嶽者는 鼻也요 又爲臍也라 臍爲崑崙之山 脾爲七氣之門이라 位는 猶主也라

〔李註〕: 氣有七氣하니 肺之元神이 主之라 是 玉闕之童子요 爲七元之子也而主調呼吸之氣라 蓋呼爲陽而應天하니 呼出心與肺하고 吸爲陰而應地하니 吸入腎與肝하야 調之에 使若存若亡하며 綿綿不息하야 象龜之優游에 浮中而鼻無吐納之迹하니 要在會掩하고 辨在生死하고 機在動照하야 陰以心數면 內無爲而外有作하야 氣不迫息하야 不漏三萬六千周天之息하야 會於一腔之內하니 水火既濟요 地天交泰라 延命酒返하고 魂漿灌溉하야 交暢羲皇景幾하고 番醉倒醒醐하니 衆人은 以鼻息이요 童子는 以心息이며 衆人은 以鼻調하고 童子는 以心調하니 此 乃肺神之妙與中岳이 同一呼吸之能也라 故曰齊其位라 鼻는 面部之中岳也니 諸氣之本이며 七氣之門也라 故로 外調鼻息은 不若內調心息이나 然非強制於外也라 內出者 寡하고 外入者 衆이라야 夜氣清明하야 靈丹之祖라하니 不知內以感乎外요 而使外之應乎內則孤陰이 徒抱하리니 純陽이 何從得來리오 故로 必內外相應而與之齊位라야 可也니라 然知調而不知時하야 龜伏乎冬이면 陰氣 多矣니 能此면 但地德事耳요 若天德則機在一轉移間하니 知者 心悟하야 若夫息後에 別有靜功하야 所以繼續而使泥丸百節로 從有收拾者則略同按摩에 正陽이

自有大概를 名爲乾沐浴이라하니 全此면 庶啓端에 有竟說之功하고 開始에 有成終之妙하며 兼費隱 包小大하야 聖門中庸大道와 一以貫之矣니라<sup>14)</sup>

**素錦衣裳黃雲帶**

〔梁註〕: 素錦衣裳은 肺膜之色也라 黃雲帶者는 肺中之黃脈이 蔓延羅絡하야 有象雲氣라

〔李註〕: 衣裳은 肺之衣膜也니 肺金色白故로 曰素라 黃雲帶者는 肺中有黃脈이 蔓延羅絡하야 象雲之漫蕩 帶之飄長이라

**喘息呼吸體不快**

〔梁註〕: 有時而然이라

**急存白元和六氣**

〔梁註〕: 白元君이 主肺氣也라 大洞經에 云 白元君者 居東房之右라하니 是也라

〔李註〕: 傍門小術에 吐納採運則呼吸自然之用이 反成喘息之殃이요 而強制於外면 違和於內體하야 固不快하야 愈戕生矣라 急須內存白元이니 白者는 肺之色이요 元者는 肺之神이요 存者는 存存不息하야 綿綿於內也니 此則六氣 融和於中而斡旋造化하며 陽脈冲暢矣라

**神仙久視無災害**

〔梁註〕: 邪不干正

**用之不已形不滯**

〔梁註〕: 常存此道면 形氣華榮하니 至誠感神之所致也라

〔李註〕: 惟神仙則能返光內照하고 夜氣調和하야 明心見性하야 久視神全이라 白元은 擅調息之能하고 童子는 妙內融之用하니 何不快之有而災害之侵也리오 且天君泰然하고 百體從令하야 左之右之에 無不宜之하고 從心所欲에 取之不竭하며 用之不窮에 長生永世하며 形神俱妙하야 白日飛昇하야 可遊天宮하고 可造洞府하야 無往不利하니 何形之滯리오 此 肺神之妙用이 如此라

**〔考察〕**

'肺部之宮似華蓋'에 대해 〔梁註〕에서는 肺在五臟之上한다했고, 〔李註〕에서는 肺有六葉하니 形이 華蓋와 같다했다.

'下有童子坐玉闕'에 대해 〔梁註〕에서는 童子의 名이 皓華이고, 玉闕은 腎中の 白氣가 위로 肺와 連결되어 있는 모습이라했고, 〔李註〕에서는 童子는 肺神이니 元神이라하고 坐玉闕(一名玉廬)은 神이 肺宮에 居하고 있음을 指稱한다했다.

'七元之子主調氣'에 대해 〔梁註〕에서는 七元은

14) 外息(鼻息)과 內息(心息)에 대한 說明이 詳細함.

七竅之元氣라하고, [李註]에서는 氣有七氣하니 肺의 元神이 主하며, 主調呼吸之氣한다했다.

'外應中嶽鼻齊位'에 대해 [梁註]에서는 中嶽은 鼻이며 臍에 해당하고 脾는 七氣之門이고 位는 主한다는 뜻이라하여 肺와 鼻 臍 脾가 呼吸을 主한다고 풀었고, [李註]에서는 衆人은 鼻息하고 童子는 心息하며 衆人은 以鼻調하고 童子는 以心調하니 肺神之妙와 中岳이 同一呼吸之能이므로 齊其位라하고 鼻는 面部之中岳이니 諸氣之本이며 七氣之門이라했다.

'素錦衣裳黃雲帶'에 대해 [梁註]에서는 素錦衣裳은 肺膜之色이고 黃雲帶는 肺中之黃脈이 蔓延羅絡하여 雲氣를 형상했다하고, [李註]에서는 衣裳은 肺之衣膜이니 肺金色白하므로 素라하고 黃雲帶는 肺中有黃脈이 蔓延羅絡하여 雲之漫蕩과 帶之飄長을 형상한다 했다.

'急存白元和六氣'에 대해 [梁註]에서는 白元君이 肺氣를 主한다 했고, [李註]에서는 吐納修鍊을 억지로 하여 喘息之殃을 만나게 되는데 이유는 強制於外하여 違和於內體하기 때문으로 不快하기도 하지만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때에 急須內存白元할 것이니 白은 肺之色이고 元은 肺之神이고 存은 存存不息하여 綿綿於內합이니 六氣를 融和於中而 斡旋造化하며 陽脈이 冲暢하게 함이라 했다.

'神仙久視無災害 用之不已形不滯'에 대해 [梁註]에서는 常存此道면 形氣가 華榮하니 至誠感神之所致라하고, [李註]에서는 神仙이 能返光內照하고 夜氣調和하여 明心見性하여 久視神全하며 天君이 泰然하고 百體가 從令하여 左之右之에 無不宜之하고 從心所欲에 取之不竭하며 用之不窮에 長生永世하니 肺神之妙用이 이와같다 하였다.

### 心部章第十

#### 【原文】

心部之宮蓮含華니  
下有童子丹元家라  
主適寒熱榮衛和하고  
丹錦飛裳披玉羅하며  
金鈴朱帶坐婆娑<sup>1)</sup>하야  
調血理命身不枯하며  
外應口舌吐五華라  
臨絕呼之亦登蘇하고  
久久行之飛太霞라

#### 【解釋】

心宮은 연꽃과 같아서 그 안에 童子가 있으니

丹元(心神의 이름)의 집이라. 한기와 열기를 적당하게 하며 營氣와 衛氣를 조화롭게 하고, 붉은색의 휘날리는 바지에 玉色の 비단을 걸치고 금방울과 붉은 띠를 걸치고 편안히 앉아서 피를 調節하고 命을 다스려 몸을 윤택하게 하며 밖으로는 혀와 응하며 오색을 드러내는구나. 죽음에 임하여도 부르면 다시 蘇生하며 오랜동안 수련하면 신선이 되리라.

(字句解)

1) 婆娑: 편안히 앉은 모양.

【各家註】

心部之宮蓮含華

[梁註]: 火宮也라 心臟之質이 象蓮華之未開也라  
下有童子丹元家

[梁註]: 心神丹元의 字는 守靈이니 神在心內而云下者는 據華蓋而言이라

[李註]: 心形이 如未放之蓮花라 童子는 心神也니 名丹元이라 居心之內故로 曰家라

主適寒熱榮衛和

[梁註]: 寒熱은 陰陽靜躁之義也라 人이 當和適以營衛其身이라 老子云 躁勝寒 靜勝熱하니 淸淨以爲天下正이라하니라

[李註]: 心神之所主者는 何也오 蓋心虛則寒而實則熱이니 血榮氣衛而心失其神則家無主而寒熱不平하고 榮衛不洽하며 心存其神則家有主而寒熱適均하고 榮衛和暢이라

丹錦飛裳披玉羅

[梁註]: 象心臟之色也라 有肺之白氣象玉羅라

金鈴朱帶坐婆娑

[梁註]: 金鈴은 內藥之象이요 朱帶는 血脈之象이요 坐婆娑者는 言神之安靜也라 九眞經에 云 黃老君이 帶流金之鈴이라하니 仙服也라

[李註]: 裳者는 心之衣膜이니 其色赤故로 曰丹錦이요 心性易逸故로 曰飛裳이라 心懸肺下하야 肺色白故로 曰披玉羅라 肺는 金也요 心象又如鈴故로 曰金鈴이라 心之包絡에 有赤筋如絲하야 上係肺 下係腎故로 曰朱帶라 婆娑者는 天宮也니 心神安靜이면 鎮位靈臺天府故로 曰坐婆娑라

調血理命身不枯

[梁註]: 心安體和則無病天라

外應口舌吐五華

[梁註]: 心主口舌하야 納五臟之液하고 辯識五行之味故로 言外應이라

[李註]: 氣는 常失之有餘하고 血은 常失之不足하

니 惟不能調其血이면 而命夭身枯矣라 人能心血盈溢而燮理冲和則命이 自我植而四大堅固하여 粹然盎然而不枯矣니 植本固者는 發源深이라 舌者는 心之苗而其外應於口舌也則五臟中太和之神液이 洋溢乎玉池하며 灌溉乎五華而華美 | 莫加矣라

**臨絕呼之亦登蘇**

[梁註]:有病厄에 當存丹元童子면 朱衣赤冠以救護之也리라

**久久行之飛太霞**

[梁註]:常修此道면 能獲飛仙이라

[李註]:谷神不死라하니 雖年老하야 有必絕之期而心神이 既調則性命은 非造化所能管攝이라 縱西山景에 暮桑榆而限이나 登絕地하야 呼之면 亦可登時하야 更生而無復絕矣라 蘇는 更生也니 果能由此而終始調理之不懈하야 久久行之則丹成而元始之眞이 自我得矣라 太霞는 天宮也니 丹成而飛昇하고 道成而朝帝故로 曰飛太霞니 心神之妙用이 如此라

**【考察】**

‘心部之宮蓮含華’에 대해 [梁註]에서는 心臟의 質이 蓮華의 未開함과 비슷하다하고, [李註]에서는 心形이 未放之蓮花와 같았다.

‘下有童子丹元家’에 대해 [梁註]에서는 神在心內한데 下하고 한 것은 華蓋로부터 기준해서 말한 것이라 하고, [李註]에서는 童子는 心神이니 名이 丹元이고 心內에 거하므로 家라고 했다.

‘主適寒熱榮衛和’에 대해 [梁註]에서는 寒熱은 陰陽靜躁니 몸을 和適하여 營衛해야한다 했고, [李註]에서는 心虛하면 寒하고 實하면 熱하니 血榮氣衛인데 心失其神하면 집에 주인이 없는 것과 같아 寒熱이 不平하고 榮衛가 不治하며 心存其神이면 寒熱이 適하고 榮衛가 和暢한다 했다.

‘丹錦飛裳披玉羅’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丹錦飛裳은 心臟의 色을 표현한 것이고, 玉羅는 肺의 白氣를 표현한 것이라 하고, [李註]에서는 裳은 心의 衣膜이니 色赤하므로 丹錦이라하고 心性이 易逸하므로 飛裳이라하고 心懸肺下하여 肺色이 白하므로 披玉羅라했다.

‘金鈴朱帶坐婆娑’에 대해서 [梁註]에서는 金鈴은 內藥之象이고 朱帶는 血脈之象이고 坐婆娑는 神之安靜을 말한 것이라하고, [李註]에서는 心象이 鈴과 같으므로 金鈴이라하고 心包絡에 赤筋이 絲와 같이 생겨서 上係肺 下係腎하므로 朱帶라하고 婆娑는 天宮이니 心神이 安靜하면 鎮位靈臺天府하므로 坐婆娑라했다.

‘調血理命身不枯’에 대해 [梁註]에서는 心安體和하면 病夭가 없다하고, [李註]에서는 氣는 有餘하기 쉽고 血은 不足하기 쉬우니 調血하지 못하면 命夭하고 身枯하게 된다. 心血이 盈溢하여 燮理가 冲和하면 命이 不枯하게 된다고 했다.

‘外應口舌吐五華’에 대해 [梁註]에서는 心主口舌하여 五臟之液을 納하고 五行之味를 구별하므로 外應이라했다하고, [李註]에서는 舌은 心苗로서 口舌에 응하므로 五臟中의 太和之神液이 洋溢乎玉池하며 灌溉乎五華하여 華美가 나타난다하였다.

‘臨絕呼之亦登蘇’에 대해 [梁註]에서는 病患中에 丹元童子를 存思하면 朱衣赤冠을 입고 救해 준다하고, [李註]에서는 必絕之期에 心神이 調하면 性命이 造化(造物主)의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登絕地하여 呼之면 亦可登時하여 更生하여 絶하지 않는다 했다.

‘久久行之飛太霞’에 대해 [梁註]에서는 常修此道하면 能獲飛仙한다하고, [李註]에서는 調理不懈하여 久久行之하면 丹이 이루어져서 元始之眞을 얻을 것이라 하고, 太霞는 天宮이니 丹을 이루면 飛昇하고 道를 이루면 朝帝하므로 飛太霞라하니 心神妙用이 이와같다 했다.

**肝部章第十一**

**【原文】**

肝部之宮翠重裏하니  
下有青童神公이라  
主諸關鏡聰明始요  
青錦披裳佩玉鈴이라  
和制魂魄津液平하고  
外應眼目日月清이라  
百病<sup>1)</sup>所鍾<sup>2)</sup>存無英하면  
同用七日自充盈이라  
垂絶念神死復生하고  
攝魂還魄永無傾이라

**【解釋】**

비취색으로 重疊된 肝宮에는 青童公자가 있어서 모든 사물을 보는 거울 역할을 하며 聰明의 始發이요, 푸른 비단에 치마를 두르고 옥구슬을 차고 있구나. 魂魄을 조화롭게 하고 津液을 평하며 밖으로는 눈에 應한다. 百病이 모이는 곳이니 無英君을 存思하면 七日來復(周易 復卦에서 引用)과 같이 저절로 血氣가 充滿하게 되는지라 죽음에 臨迫해서도 肝神을 念하면 죽다가도 다시 살아나고 魂을 가다듬고 魄을 되돌려서 命이 기울지 아니하

리라.

(字句解)

- 1) 病: 疾禍(질병)의 뜻.
- 2) 鍾: 聚(모인다)의 뜻.

[各家註]

**肝部之宮翠重裏**

[梁註]: 木宮也라 肝色蒼翠는 大小相重之象也라 下有青童神公子

[梁註]: 肝은 東方木位主春故로 曰青童이라 左位爲公子니 公子는 一名含明이라 上有華蓋故로 曰下

[李註]: 肝色青色有光艷曰翠라 外青內翠故曰重裏라 青童은 肝神也라 肝乃東方震木이요 震爲長男故로 稱公子라

**主諸關鏡聰明始**

[梁註]: 於時主春하니 青陽之本始요 於竅主目하니 五行之關鏡也라 故曰聰明之始라

[李註]: 肝神之所主者는 何오 蓋能閱物曰關이요 能照物曰鏡이라 肝開竅於目而光明四達하야 無遠不屆하고 無微不燭이라 何其關鏡之聰明也리오 然이라 皆公子 | 主之是目之聰明이니 非肝以始之乎아

**青錦披裳佩玉鈴**

[梁註]: 青錦은 肝之色이라 玉鈴은 白脈垂之象也라 昇玄經에 云 三天玉帝 | 帶火玉之珮라하고 素靈經에 云 靈耀君衣青錦單裳이라하니 皆神仙之服也라

[李註]: 青錦은 肝之正色也라 披裳은 肝之衣膜也라 肝懸華蓋之下하니 肺色白故로 曰佩玉鈴이라 素靈經에 云 青錦單裳은 乃神仙之內服이라하니라

**和制魂魄津液平**

[梁註]: 內指事也라 東春和煦에 萬物生成이라

**外應眼目日月清**

[梁註]: 肝位屬眼하야 象日月明이라

[李註]: 肝內藏魂하고 淚爲肝之液이라 眼目者는 人之日月也라 惟肝神이 失其主則不能和制魂魄 調平津液而日月이 昏蝕矣라 若公子 | 克家則血氣充溢而魂魄이 相拘라 但見精神煥發이면 葉不薄而津液平이니 何有昏淚之汪汪이리오 而外應眼目하야 眸子 | 清瞭炯然이 如日月之昭回와 雲漢清光普照矣라

**百病所鍾存無英**

[梁註]: 左爲無英<sup>15)</sup>이니 肝神在左故로 存之라 有本爲無英이라하니 無英者는 物生之象也라

**同用七日自充盈**

[梁註]: 五臟兼存故로 言同用이라 七日爲一竟이니 一竟에 一復也라 故로 周易曰七日來復이라하니 是也라

[李註]: 眼爲六賊之首니 治容艷色과 奇玩珍羞 | 一觸於目即悅諸心而公子之主 | 皆爲所喪이요 千災百禍 | 皆從此聚故로 曰百病所鍾이라 病者는 疾禍也요 鍾者는 聚也니 人能參透此竅而非禮勿視하야 存無欲이면 內觀之功이 克去己私하야 無使英華靡蕩之事로 誘之於外하야 復還天理하니 同一陽來復於七日之用則內境清明而榮充衛溢하야 明四目 達四聰 安魂平液이라 左目金鳥 右目玉兔니 公子不擁虛器矣라 易之七日來復은 乃陰極而陽生也요 此之七日來復은 乃欲淨而理還也라 故曰同用이라

**垂絕念神死復生**

[梁註]: 存念青衣童子形如上說이라

**攝魂還魄永無傾**

[梁註]: 太微靈書에 云 每月三日 十三日 二十三日夕에 三魂棄身遊外하니 攝之者는 當仰眠去枕伸足交手心上하고 瞑目閉氣三息하고 叩齒三通하면 存心中에 有赤氣如鷄子하야 從內出於咽中하야 赤氣 | 轉大하고 覆身하야 變成火以燒身하야 使而覺體中小熱하고 呼三魂名曰爽靈 胎光 幽精이라하고 卽微呪曰太微玄宮中黃始青內鍊三魂胎光安寧神寶玉室與我俱生不得妄動鑿者太靈若欲飛行唯詣上清若有饑渴得飲玄水玉精이라하고 又每月朔望晦日에 七魄이 流蕩交通鬼魅하니 制檢還魄之法에 當此夕하야 仰眠 伸足 掌心 掩兩耳 令指相接於項上 閉息七遍 叩齒三通 心存鼻端이면 白氣如小豆大라가 須臾에 漸大하야 冠身上下九重이면 氣忽變成하야 兩青龍在兩目中하고 兩白虎在兩鼻孔中하야 皆向外하고 朱鳥在心上向人口 蒼龜在左足下 靈蛇在右足下 兩玉女著錦衣手把火光當兩耳門 畢咽液七過呼七魄名曰尸狗 伏矢 雀陰 吞賊 非毒 除穢 臭肺라하고 卽微呪曰素氣九回制魄邪姦 天獸守門 嬌女執關 鍊魄和柔 與我相安 不得妄動 看察形源 若有饑渴 聽飲月黃日丹이라하니라

[李註]: 人之垂絕也에 則魂散而不攝하고 魄寂而不返하니 大命이 傾矣라 若果存無英而同用七日로 以致自然充盈則縱老限垂絕而念公子之神이면 得主自然死者 | 復生而攝魂返魄하야 長生永世하야 無傾殞之時矣니 肝神之妙用이 如此라

**[考察]**

'肝部之宮翠重裏'에 대해 [梁註]에서는 肝色이

15) 無英: 眉間却入二寸爲洞房이니 左는 無英君 右는 白元君 中央은 黃老魂이라

蒼翠한 것은 大小葉이 겹쳐있기 때문이라고하고, [李註]에서는 肝色이 青色이면서 光艷이 있는 것을 翠라하며 外靑內翠하므로 重裏라한다고 했다.

‘下有靑童神公子’에 대해 [梁註]에서는 肝은 東方木位로서 主春하므로 靑童이라고하고 左側이 公子의 位니 一名含明이고 上有華蓋하므로 下라했고, [李註]에서는 靑童은 肝神이고 肝은 東方震木이며 震은 長男이므로 公子라 稱했다.

‘主諸關鏡聰明始’에 대해 [梁註]에서는 於竅主目하니 五行之關鏡이므로 聰明之始라하고,

[李註]에서는 能閱物曰關이고 能照物曰鏡이라했다.

‘靑錦披裳佩玉鈴’에 대해 [梁註]에서는 靑錦은 肝色이고 玉鈴은 白脈의 象이니 神仙의 衣服이라하고, [李註]에서는 靑錦은 肝色이고 披裳은 肝의 衣膜이며 肝은 華蓋下에 있고 肺色이 白하므로 佩玉鈴이라했다.

‘和制魂魄津液平’에 대해 [梁註]에서는 東春和煦에 萬物生成이라했고, [李註]에서는 肝內에 藏魂하고 淚는 肝液이라했다.

‘外應眼目日月清’에 대해 [梁註]에서는 肝位屬眼하며 象日月明이라하고, [李註]에서는 眼目은 人之日月이니 肝神이 失其主하면 和制魂魄과 調平津液을 하지 못해서 日月이 昏蝕하고 만약 公子가 克家하면 血氣가 充溢하고 魂魄이 相拘하여 精神煥發하면 肝葉이 不薄하고 津液이 平하여 外應眼目하니 眸子(눈동자)가 淸瞭할 것이라 했다.

‘百病所鍾存無英’에 대해 [梁註]에서는 左爲無英君이고 肝神이 在左하므로 存之하며 無英은 物生의 象이라했고, [李註]에서는 眼이 六賊之首로서 治容艷色과 奇玩珍羞가 한 번 눈에 띄면 마음을 動하여 公子之主가 喪하는 원인이 되니 千災百禍가 모두 이로부터 생기므로 百病所鍾이라 한것이라 했다.

‘同用七日自充盈’에 대해 [梁註]에서는 五臟이 兼存하므로 同用이라하고 七日은 一竟(週期)을 나타내는 것이라하고, [李註]에서는 存無欲이면 復還天理하니 一陽來復於七日之用과 같으므로 內境淸明하고 榮充衛溢하여 明四目 達四聰 安魂平液한다고 周易의 七日來復은 陰極陽生함이고 여기서의 七日來復은 欲淨理還하는 것이므로 同用이라한다 했다.

‘垂絕念神死復生 攝魂還魄<sup>16)</sup>永無傾’에 대해 [梁

註]에서는 靑衣童子를 存念한다하고, [李註]에서는 죽음에 임박하여 魂散不攝하고 魄寂不返하여 大命이 傾하려할 때 無英을 存하여 同用七日(欲淨理還)로 自然充盈하면 비록 老限垂絕(늙어죽음에 이를 때)이라고 公子之神을 念하면 죽으려 하던 사람이 다시 生하고 攝魂返魄하여 長生永世하니 肝神의 妙用이 이와 같다했다.

## 腎部章第十二

### 【原文】

腎部之宮玄關圓이니  
中有童子冥上玄이라  
主諸六腑九液源하며  
外應兩耳百液津이라  
蒼錦雲衣舞龍幡<sup>1)</sup>하야  
上致明霞日月煙이니  
百病千災急當存이라  
兩部水王對生門하니  
使人長生升九天이라

### 【解釋】

腎宮은 玄關로서 圓하니 그 안에 童子가 있으니 上玄을 그윽히 바라보네. 六腑九液의 根源을 主하며 밖으로는 兩耳와 應하고 모든 津液을 管掌한다. 蒼錦과 雲衣(腎臟의 形象)를 입고 龍幡의 춤(腎이 心을 求하는 모습)을 추니 위로는 밝은 노을과 日月의 기운이 감도니 百病千災에 마땅히 存思할 지니라 兩腎의 水가 旺盛하여 生門을 이루니 長生하여 九天에 오르게 하는구나!

(字句解)

1) 幡: 표기 번, 나부길 번.

【各家註】

### 腎部之宮玄關圖

[梁註]: 水宮也라 玄關圖者는 腎之形狀也라 玄은 水色이니 內象論也라

### 中有童子冥上玄

[梁註]: 腎爲下玄이요 其神玄冥이며 字育嬰이라 心爲上玄이요 上玄幽遠하야 氣與腎連故로 言冥上玄이라

[李註]: 腎은 乃玄武之水而居幽黑之地라 故曰玄關이라 圓者는 腎之形이 圓也라 童子는 腎神也니 名玄冥이라 蓋天一之水는 造化之根이니 學道者 | 宗玄北而得一則天之性命이 存乎一觀之中而杳<sup>17)</sup>冥無上玄道 | 自我獲矣라 故曰冥上玄이라 不觀之鹿與

16) ‘攝魂還魄’에 대해서는 [梁註]에 자세하게 쓰여 있으니 參考바람.

17) 어두울 묘

龜乎아 鹿通督脈而運尾間之精하야 沖起命元하니 是 陽脈之精升也요 龜通任脈而納鼻息之氣하야 道動性元하니 是陰脈之氣降也라 所以各有千年之壽는 若人求壽而必求之督任以盡升降之功則亦能不死矣니 蓋兩腎之中이 乃玄關一竅之處니 中虛而太極欲動未動之妙 涵焉하니 號赤子府라 白玉蟾이 曰兩腎中間一點이라하니 明此之謂也요 老子이 曰 知雄守雌 知白守黑이라하니 妙道之基根이 抵於此라 所以太極動則生陽 靜則生陰而爲萬化萬生之橐籥也요 玄中之玄이며 竅中之竅라 滯乎外者는 失之虛하고 泥乎內者는 失之固하야 道在邇而求之遠하며 事在易而求之難하니 哀哉라

**主諸六腑九液源**

[梁註]:五臟六腑九液이 交連하고 百脈이 通流하야 廢一不可하니 六腑如上說九液九竅之津液이라

**外應兩耳百液津**

[梁註]:腎宮主耳하니 氣衰則聾이라 陰陽和合이 라야 血液流通이라

[李註]:腎之所主者는 何오 腎有二하니 左名腎이요 右名命門이니 人生受胎에 命門이 先具而後心脾肺肝이 隨之라 腎雖後生이나 而氣 與命門으로 相通하니 心非腎則火炎이요 肺非腎則金燥요 肝非腎則木稿요 脾非腎則土乾이라 小腸은 附於心하고 大腸은 附於肺하고 膽은 附於肝하고 胃는 附於脾하니 總之면 皆腎水以滋潤之而主其化也라 膀胱은 爲腎之腑而滋潤九竅則九竅之有液流通이 其源皆發於腎也라 故曰九液源이라 兩耳者는 腎之竅니 腎氣 足則耳聰하고 腎氣 耗則耳病이라 故外應乎兩耳而其液也 周流一身하야 上而泥丸하고 下而湧泉하야 四肢百骸 莫非津液之所貫通焉이라 蓋天包乎地而水無地不存이요 氣如橐籥하고 血如波瀾하야 血隨氣行호대 人一身內血이 若一息하야 有滯則疾生矣니라

**蒼錦雲衣舞龍幡**

[梁註]:蒼錦은 腎色之象也라 雲衣는 腎膜之象也라 龍幡은 青脈之象也라 九眞經에 云 道君은 服青錦衣蒼華之裙也라하니라

[李註]:蒼錦은 腎色也라 雲衣는 腎膜也라 腎藏은 眞一之汞이니 名震龍이라 龍性이 飛揚하야 求兌虎眞一之鉛하니 彼此招攝<sup>18)</sup>繞句結故로 曰舞龍幡이라

**上致明霞日月煙**

[梁註]:腎氣充足하면 耳目聰明하고 陰陽不衰하니 外象諭也라

**百病千災急當存**

[梁註]:元陽子曰 寒暑相生하고 男女相成하며 腎中二神이 常衣青호대 左男은 戴日하고 右女는 戴月하야 存想見之則永無災患者也라

[李註]:龍吟虎嘯에 鉛汞結丹하니 形如明窓塵하고 色如五彩霞라 石函記에 云紫霞 紅霞類 是也라 鉛含眞一之陽炁하고 汞含眞一之陰炁하며 日爲陽精이요 月爲陰精이니 腎神童子 存腎之眞而玄關에 有主則上致明霞而日月精華之氣 發見呈祥이 如煙之沖勃矣라 蓋水竭則精枯하고 精枯則神稿하며 神稿則氣絕而形寂하니 所以腎水 若虧則病至災生故로 凡有百病千災者 急當存腎之神而調燮滋養하야 使水充盈而足以灌溉五臟六腑百節兩耳則明霞日月之煙이 可致하리니 而何病災之足慮리오

**兩部水王對生門**

[梁註]:腎臟이 雙對故로 曰 兩部腎宮이 水王則化爲赤子라 故로 曰對生門이라

**使人長生升九天**

[梁註]:赤子 化爲眞人而昇九天하니 九天者는 謂九氣青天이니 其氣 主生者也라

[李註]:玄關一宮에 腎關은 列左하고 命門은 列右하야 分爲兩部하니 水旺乎腎이라 天一生水하고 人一生精하야 乃五行之首라 故曰王이라 腎關은 乃男子 藏精之所니 有父道焉하고 命門은 乃女子 藏經繫胞之所니 有母道焉이라 玄牝之門이 是爲天地根이니 順則成人하고 逆則成仙하니 生生之門也요 左右相對故로 曰對生門이라 學道者 能參破生門之訣而下手着存神則長生住世而功行圓滿하야 昇九天하고 跨麟騎鶴하야 朝帝稱眞矣라 天은 陽也니 陽數九爲老故로 天曰九天이라 腎神之妙用이 如此하니 蓋先天交媾에 逆持活子는 天仙之玄牝也요 心腎妙 坎離之體와 水火神 鉛汞之用은 地仙之玄牝也요 鼻息納陰陽之運하야 子午定呼吸之眞은 人仙之玄牝也요 認中極之定穴이 泥丹基하야 執天地之中氣하야 分陰陽은 鬼仙之玄牝也라 天仙上品은 竅妙機神하니 非上士法器면 曷能參解리오 矧易行持아 至人을 難遵며 口訣을 艱遭니 志士 幸靚에 茲經을 毋棄毋暴하라

**【考察】**

‘腎部之宮玄關圖’에 대해 [梁註]에서는 玄關圖은 腎之形狀이라했고, [李註]에서는 腎은 玄武의 수로서 幽黑之地에 거하므로 玄關이라하고 圖은 腎形을 나타낸다고 했다.

‘中有童子冥上玄’에 대해 [梁註]에서는 腎은 下

18)서릴 반, 두를 반

玄인데 神의 名이 玄冥이며 字는 育嬰이고 心이 上玄으로서 幽遠하지만 氣가 腎과 通하므로 冥上玄이라했다하고, [李註]에서는 童子는 腎神이니 名이 玄冥인데 天一之水는 造化之根이니 學道者가 宗玄牝而得一이면 天之性命이 存乎一竅之中하여 杳冥한 無上玄道를 獲할 수 있으므로 冥上玄이라 한다 했다.

'主諸六腑九液源'에 대해 [梁註]에서는 五臟六腑의 九液이 交連하고 百脈이 通流하여 廢一不可라 하고, [李註]에서는 心非腎이면 火炎하고 肺非腎이면 金燥하고 肝非腎이면 木稿하고 脾非腎이면 土乾하며 小腸은 附於心하고 大腸은 附於肺하고 膽은 附於肝하고 胃는 附於脾하니 모두 腎水로서 滋潤하고 膀胱은 腎之腑로서 滋潤九竅하니 九竅津液이 其源이 모두 腎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九液源이라고 했다.

'外應兩耳百液津'에 대해 [梁註]에서는 腎宮이 主耳하니 氣衰하면 聾하고 陰陽이 和合하면 血液이 流通한다하고, [李註]에서는 耳는 腎之竅니 腎氣가 足하면 耳聰하고 腎氣가 耗하면 耳病이 되므로 外應乎兩耳라하고 其液은 周流一身하여 上而泥丸하고 下而湧泉하여 四肢百骸가 津液의 貫通함이 되는데 만약 血이 滯하면 疾病이 生한다고 했다.

'蒼錦雲衣舞龍幡'에 대해 [梁註]에서는 蒼錦은 腎色을 표현한 것이고, 雲衣는 腎膜의 형상이며, 龍幡은 靑脈의 形象이라하고, [李註]에서는 蒼錦은 腎色이고 雲衣는 腎膜이니 腎藏은 眞一之汞으로서 震龍인데 龍性이 飛揚하여 兌虎眞一之鉛을 구하니 서로 招攝<sup>19)</sup>繞句結하므로 舞龍幡이라 했다.

'上致明霞日月煙'에 대해 [梁註]에서는 腎氣가 充足하면 耳目이 聰明하고 陰陽이 不衰한다하고, [李註]에서는 龍吟虎嘯이 鉛汞結丹하니 形은 明窓塵과 같고 色은 五彩霞와 같다. 鉛은 含眞一之陽炁하고 汞은 含眞一之陰炁하며 日은 陽精이고 月은 陰精이니 腎神童子가 存腎之眞而玄關에 有主則 上致明霞하며 日月精華之氣가 發見呈祥함이 煙의 沖勃함과 같다.

'百病千災急當存'에 대해 [梁註]에서는 寒暑가 相生하고 男女가 相成하며 腎中二神이 常衣靑함에 左男은 戴日하고 右女는 戴月하여 存想見之하면 災患이 없을 것이라 하고, [李註]에서는 水竭하면 精枯하고 精枯하면 神稿하며 神枯하면 氣絕하고 形寂하니 腎水가 만약 虧하면 病災가 生하므로 百

病千災에 腎神을 存思하여 調養滋養하여 五臟六腑 百節兩耳를 灌溉하여 明霞日月의 煙이 生할것이니 病災를 근심할 것이 없다 했다.

'兩部水王對生門'에 대해 [梁註]에서는 腎臟이 雙으로서 旺盛하면 赤子を 생성하므로 對生門이라 하고, [李註]에서는 玄關一宮에 腎關은 左에 있고 命門은 右에 있어서 兩部로 나뉘니 水가 腎에 왕성하게 된다. 天一生水하고 人一生精하여 五行之首가 되므로 王이라했고, 腎關은 男子가 藏精하고 命門은 女子가 藏經繫胞하므로서 天地의 根인데 順하면 成人하고 逆하면 成仙하니 生生之門이고 左右相對하므로 對生門이라 했다.

'使人長生升九天'에 대해 [梁註]에서는 赤子가 化하여 眞人이 되어 九天에 오른다 하니 九天은 九氣青天이니 氣가 生을 主한다 하고, [李註]에서는 學道者가 生門之訣을 익혀서 存神을 잘하면 長生하며 功行圓滿하여 昇九天한다 했다.

### 脾部章第十三

#### 【原文】

脾部之官屬戊己니  
中有明童黃裳裹라  
消穀散氣攝牙齒하니  
是爲太倉兩明童이라  
坐在金臺城九重하고  
方圓一寸命門中하야  
主調百穀五味香하며  
辟却虛羸無病傷이라  
外應尺宅氣色芳하니  
光華所生以表明이라  
黃錦玉衣帶虎章하야  
注念三老子輕翔하며  
長生高仙遠死殃이라

#### 【解釋】

脾宮은 戊己(土)에 屬하니 밝은 童子가 黃色의 치마를 입고 있네. 穀食을 消化하고 氣運을 散布하며 齒牙를 通攝하니 이가 곧 太倉으로 脾胃의 두 童子라. 金臺에 앉으니 城이 九重이고 方圓一寸의 命門中에 이르고 모든 穀食의 味香을 조화하여 虛弱함을 물리쳐 病이 없게 하네. 밖으로는 얼굴에 應하여 氣色을 드러내니 光華가 생하여 밖으로 드러나는구나. 黃色 비단과 玉色의 옷에 호랑 무늬의 內衣를 입고 三老를 注念하면 童子가 가벼이 나르며 長生하여 高仙이 되니 죽음과 재앙은 멀리가네.

19)서릴 반, 두를 반

[各家註]

**脾部之宮屬戊己**

[梁註]:土宮也라 戊己는 中央之辰也라

**中有明童黃裳裹**

[梁註]:明童은 謂魂倅이요 黃裳은 土之色이라

[李註]:脾 | 爲己土之臟 倉庫之官也요 胃 | 爲戊土之腑 倉庫之吏也니 官運其治하고 吏承其化故로 脾部之宮은 屬戊己也라 明童은 脾之元神也요 土는 黃色故로 其裳黃裹니 此戊己는 乃五臟一定之位니 當道中黃之土也라 若修真之戊己則又至神至妙하야 未易窺測이나 敬詳之호니 蓋腎은 爲水爲坎이니 戊土也요 心은 爲火爲離니 己土也라 水升火降하고 顛倒坎離하야 二土成圭하야 既濟結丹則大中真人이 居黃庭하고 而裳黃裹之明童이 存其真矣라 老子 | 曰黃裳은 中色이라하고 孔子 | 曰黃裳元吉은 文在中也라하니 明童은 言二土成圭하고 象日月合明하고 貴乎生剋得制하니 腎神은 逆傳於心하니 水剋火也요 心神은 順傳於脾하니 火生土也라 一順一逆이 卽一升一降이니 久久行之에 能辟穀改顏하고 入定出神이면 地仙이 乃現이라 仙師 | 云積土以防水也나 涓涓不塞하고 滔天莫遏이며 積水以防火也나 焚焚不撲則燎原을 莫禦라 故로 積之는 貴深하고 累之는 貴厚하니 鍊已를 稍欠이면 神明이 不來라 此 | 又三呼我名神通之意라 其升也 | 有驪龍養珠之法하고 其降也 | 有獅子倒坐之訣하니 非此竅妙則心息을 不能抑이요 胎息을 不能存이니 水從何升이며 火從何降이리오 此機 | 非億度이요 妙在神開라 蓋獅訣은 在心息處에 加抑之功이면 自然外有倒身之勢 | 酷하야 象獅子倒坐하야 龍法은 在蒂中處에 加掩之功이면 自然外有含珠之狀이 儼하야 象驪龍養珠하니 均之 | 皆要在會掩이라 愚有玄穀篇 誌之篇에 曰修真之道 | 莫先於收神이니 伏氣而收神호대 伏氣는 莫尙於踵息이라하니 一端踵者는 抑而深之之意也라 然이나 豈有外於呼吸哉리오 不過卽呼吸인댄 由起之根을 生身受氣之初以求之耳라 蓋嬰兒 | 在母腹中에 臍帶相連일새 辟之橐籥하야 母呼亦呼하고 母吸亦吸이러니 斯時에 目無所見 耳無所聞 心無所知하고 稟受父母一性之靈하니 卽吾心之元神也며 眞人也라 毫無走逸하니 所以能守胎中之一息也라 人能知嬰兒之所以胎息則知所以踵息矣라 然이나 修真이 何爲在踵息也리오 人身은 一小天地니 獨不觀之大天地乎아 今夫天이 一年에 一呼吸하야 所以長生不毀니 人 一日之呼吸이 計三萬六千이니 清靜三昧라도 隨呼隨吸하야 潛爾耗散하니 况自嬰兒而童子而少壯而老耄하야 日爲物欲所引하

고 不識持束하야 時爲口鼻所泄하야 不能守眞人胎中之一息이라 是以로 汨喪元氣하야 未百歲而天亡也라 然則欲返吾之神息而得與天地同久者는 將何以爲功哉아 亦曰抑而深之耳니 抱一心之元神하야 守玄牝之元根이 此 | 吾抑而深之之意也라 天之道는 以斗爲柄而人之運은 以心爲機라 是以로 握心之神하고 運氣之機則三萬六千息之多 | 自然深深潛伏而會爲一元之氣하야 始而抑之하고 抑之不己則無意無必無固無我하야 以外則不入하고 以內則不出이라 參同契에 云眞人은 潛深淵이라가 浮游에 守規中이라하니 是也라 夫浮游則不滯於所主而通之以圓覺이요 規中則不注於所適而比之以定慧니 定慧者는 圓覺之所自來요 圓覺者는 定慧之所自至니 兩相聯環而心息이 自相依矣라 息息歸根하야 息息復命하야 氣之積於下者는 無地可透하야 自然引之而上至於髓海하니 髓海者는 卽泥丸也며 天根也며 性元也요 氣之積於上者는 無處可奔하야 自然返之而下至於氣海하니 氣海者는 卽丹田也며 地根也며 命元也라 古先達人이 得躋長生者 | 以有周天升降과 河車運轉之法也니 有此則二脈이 相接하고 循環無端하니 卽任督二脈也라 吸之에 接天地無涯之氣而呼之에 續父母有限之身하니 行之一時엔 可奪一時之造化나 行之永久하야 可縱橫闖關하야 叱劍降龍하고 飛劍伏虎하니 金可敲<sup>20)</sup>而玉可憂<sup>21)</sup>矣라 夫鹿은 通督脈而運尾閭之精하야 冲起命元하니 是 | 陽脈之精升也요 龜 | 通任脈而納鼻息之氣하야 追動性元하니 是 | 陰脈之氣降也니 所以各有千歲之齡이라 然其要 | 在存吾心之元神而已니 元神이 存則眞息이 踵하고 眞息이 踵而吾身之嬰兒 | 孕矣라 且功을 不可間이니 功熟則機自神하야 氣不可逸하고 氣冲則化自妙하야 能如鶴如龜하야 納息內運周天에 度洽神妙自然하야 金橋聲이 徹玉漏라 滴符經에 云周天息數微微數 玉漏寒聲滴滴符라하니 工夫到此면 自有不胎息而自胎息之神을 奈何리오 大道는 隱機하고 神功은 藏用하니 盲師 | 言坐則專之靜이나 而靜中一念之動을 將何法以制之며 言氣則專之運而閉處에 一煙之突을 將何術以平之리오 故로 靜入枯禪하고 運招天拆이나 獨孟子不動心之有道而善養浩然하시니 其機括이 正與胎息相符라 若龍獅之訣에 動은 以翼乎靜而中和 | 自致하고 抑은 以神乎冲而天地自塞이라 然이나 尤不傳之秘를 儒固不肯明言하고 道又深隱其要하니 此學道者 | 無門可入矣라 然養心은 莫養於寡欲이나 知寡而不知所以寡면 天君을 焉

20) 두드릴 고

21) 창 알, 두드릴 알



得而不清<sup>22)</sup>리오 岐黃經에 云 男有辜丸하고 女有囊戶하니 乃百脈所繫之宗이요 百骸所束之會라 御之得術則相火 | 由之以戢하고 御之失術則淫火 | 由之以縱하리니 養生者 | 此又不可不知니라

**消穀散氣攝牙齒**

[梁註]:脾는 爲五臟之樞라 脾磨食消라야 性氣乃全이라 齒는 爲羅千故로 攝牙齒라

**是爲太倉兩明童**

[梁註]:太倉은 脾府라 此明童은 謂脾神이니 神名混康이라

**坐在金臺城九重**

[梁註]:注念存思하니 神狀當然이라

[李註]:胃 | 爲水穀之海요 脾 | 爲消化之器라 故曰消穀이라 脾 | 多氣而其氣則土旺四季故로 曰散氣라 開竅於口하야 外列者 | 齒요 內列者 | 牙而皆口以管攝之故로 曰攝이라 太倉은 倉廩之名이니 脾官胃吏에 皆有元神故로 曰兩明童이라 金臺者는 脾神傳肺하니 土生金也라 故로 坐金臺요 土位中央하야 水火金木이 四面環遶하야 如朝廷端拱을 九重之城而百官萬民이 莫不朝宗이라

**方圓一寸命門中**

[梁註]:卽黃庭之中 丹田之所也라

**主調百穀五味香**

[梁註]:口中滋味는 脾磨之所致也라

**辟却虛羸無病傷**

[梁註]:內指事也니 食消故也라

[李註]:脾土五 胃土五 二五成十故로 方圓得一寸之數라 命門은 腎之右宮이니 受脾所制하야 逆變經脈하니 土剋水也라 故로 曰命門中이라 脾는 無胃土면 無其佐하고 胃는 無脾土면 無其主니 包容百穀하야 五味出焉이라 天食人以五氣而香氣湊脾하고 地食人以五味而甘味入脾故로 主調百穀而五味香이라 明童이 存神而戊己 | 有主則氣壯 神生 形全 德備하야 辟却虛羸而無病傷矣니 蓋虛羸는 病傷之所由生也니 古人治未病不治已病이라 土神이 旺則四神이 從令而何病傷之有리오

**外應尺宅氣色芳**

[梁註]:尺宅은 面也라 饑飽虛羸 | 形乎面色이라 光華所生以表明

[梁註]:亦知虛實이라

[李註]:尺宅은 面部也라 脾神이 內旺則英華 | 發外而應乎面也라 氣色이 冲和면 粹然芳美하고 而精英이 生內하면 自然光華表外라 有抑之而愈著하고 遏之而莫禦而宣著明朗하니 五華之精이 均與脾而應

於尺宅矣라

**黃錦玉衣帶虎章**

[梁註]:脾主中黃하니 謂黃庭真人服錦衣也라 玉清隱書에 云 太上道君 佩神虎大章也라

[李註]:黃錦은 脾之色也라 玉衣는 脾之膜也라 戊己 | 合而成圭하고 龍虎 | 合而成丹故로 曰帶虎章이라하니 章者는 章美也라 玉清隱書에 云太上道君 佩神虎大章이 是也니 乃黃庭內服耳라

**注念三老子輕翔**

[梁註]:三老는 謂元老 玄老 黃老之君也라 念脾中真人이 自然變化子하니 謂受黃庭之學이라하니라

[李註]:戊土 | 爲腎老요 己土 | 爲心老요 二土 | 合而眞土爲脾老故로 曰三老라 審能注念三老而童子存眞則煉形成化 煉氣成神而戊己 | 歸於大中 純陽道得하고 輕清在我하야 可以飛翔天際而瞬息萬里升天入地하야 無往而非順適之境矣라

**長生高仙遠死殃**

[梁註]:莊子曰 方生方死 方死方生 方可方不可 方不可方可를 以此而談이면 其理 | 均也라 故로 長生者는 不死하고 寂滅者는 不生이니 不死不生則眞長生이요 不生不死則眞寂滅이니 何死殃之所及也리요

[李註]:谷神不死하니 位列高仙이라 體化純陽하야 壽同天地하며 逍遙物外호대 自在人間하니 何死殃之遠을 不可得哉아 然無非黃中通理之效也니 脾神之妙用이 如此라

**【考察】**

‘脾部之宮屬戊己 中有明童黃裳裏’에 대해 [梁註]에서는 戊己는 中央之辰이고, 明童은 魂停(脾神의 字)이고 黃裳은 土色이라하고, [李註]:脾는 己土之臟이며 倉庫之官이고 胃는 戊土之腑며 倉庫之吏니 屬戊己라하고 明童은 脾의 元神이고 土는 黃色이므로 裳이 黃裏라했다.

‘消穀散氣攝牙齒 是爲太倉兩明童’에 대해 [梁註]에서는 脾는 五臟之樞로서 脾磨食消해야만 性氣다 온전하고 齒는 羅千(齒神의 字)이므로 攝牙齒라했다하고, 太倉은 脾府이고 明童은 脾神이니 名이 混康이라하고, [李註]에서는 胃는 水穀之海이고 脾는 消化之器이므로 消穀이라하고 脾는 多氣하며 土旺四季하므로 散氣라하고 開竅於口하야 外列者는 齒이고 內列者는 牙로서 모두 口로서 管攝되므로 攝이라하고 太倉은 倉廩之名이니 脾官胃吏에 모두 元神이 있으므로 兩明童이라했다.

‘坐在金臺城九重’에 대해 [梁註]에서는 注念存思

22) 뒤섞일 효, 어지럽힐 효.

하니 神狀이 當然하다하고, [李註]에서는 金臺는 脾神傳肺하니 土生金이므로 坐金臺라하고 土位中央하여 水火金木이 四面環繞하여 朝廷端拱을 九重之城에서 百官萬民이 모두 朝宗함과 같으므로 九重이라했다.

‘方圓一寸命門中’에 대해 [梁註]에서는 黃庭之中이니 丹田之所라하고, [李註]에서는 脾土五 胃土五로서 二五成十하므로 方圓이 一寸이 되며 命門은 右腎宮으로 土剋水하므로 命門中이라했다.

‘主調百穀五味香 辟却虛羸無病傷’에 대해 [梁註]에서는 口中滋味는 脾磨之所致라하고,

[李註]에서는 脾胃가 包容百穀하여 五味가 出하니 天은 五氣를 사람에게 주어 香氣가 湊脾하고 地는 五味를 사람에게 주어 甘味가 入脾하므로 主調百穀五味香이라하고, 明童이 存神하여 戊己가 有主하면 氣壯 神生 形全 德備하여 虛羸를 물리쳐 病傷이 없게되니 虛羸는 病傷의 원인이니 治未病不治己病의 뜻이고, 土神이 旺하면 四神이 從令하여 病傷이 없게 된다했다.

‘外應尺宅氣色芳 光華所生以表明’에 대해 [梁註]에서는 尺宅은 面이니 饑飽虛羸가 面色에 나타나서 이로서 허실을 알 수 있다하고, [李註]에서는 尺宅은 面이니 脾神이 內旺하면 英華가 發外하여 面에 응한다. 氣色이 沖和하면 粹然芳美하고 精英이 生內하면 自然히 光華가 表外하니 五華之精이 脾와 함께하고 尺宅(面)에 응한다했다.

‘黃錦玉衣帶虎章’에 대해 [梁註]에서는 脾主中黃하니 黃庭真人服錦衣라하고, [李註]에서는 黃錦은 脾色이고 玉衣는 脾膜이니 戊己가 合하여 成圭하고 龍虎가 合하여 成丹하므로 帶虎章이라하니 章은 章美의 뜻이니 玉清隱書에 “太上道君 佩神虎大章”이라하니 黃庭內服이라했다.

‘注念三老子輕翔’에 대해 [梁註]에서는 三老는 元老 玄老 黃老君이라하고, [李註]에서는 戊土는 腎老이고 己土는 心老이며 二土가 合하여 眞土인 脾老가 되므로 三老라했다. 三老를 注念하여 童子가 存眞하면 煉形成化 煉氣成神하여 戊己가 歸於大中하고 純陽이 道得하여 輕清이 在我하여 飛翔天際하며 瞬息에 萬里升天入地하여 順適之境이 아님이 없다했다.

‘長生高仙遠死殃’에 대해 [梁註]에서는 長生者는 不死하고 寂滅者는 不生이니 不死不生하면 眞長生이고 不生不死하면 眞寂滅이니 死殃이 미치지 않는다하고, [李註]에서는 谷神不死하여 位列高仙하니 體化純陽하고 壽同天地하며 逍遙物外호대 自在

人間하니 死殃이 미치지 못한다했다.

#### 膽部章第十四

##### 【原文】

膽部之宮六腑精이니  
中有童子耀<sup>1</sup>威明이라  
雷電八振揚玉旌하니  
龍旂橫天擲<sup>1</sup>火鈴이라  
主諸氣力攝虎兵하고  
外應眼童鼻柱間하며  
腦髮相扶亦俱鮮이라  
九色錦衣綠華裙하고  
佩金帶玉龍虎文하니  
能存威明乘慶雲하야  
役使萬神朝三元이라

##### 【解釋】

膽宮은 六腑의 精이 모이는 곳이니 童子의 名은 龍曜이고 字는 威明이라 雷電이 八方에 뻗치듯하고 玉旌이 휘날리듯 하며 龍旂가 하늘을 가르듯하고 불방울을 던지듯하니 모든 氣力을 主하고 호랑이와 武器를 잡으며 밖으로는 눈동자와 眉間에 應하며 腦髮을 茂盛하게 하네. 九色の 비단옷과 綠色의 빛나는 소매에 金을 차고 玉을 두르며 龍과 호랑이의 무늬가 있으니 능히 膽神(威明)을 存思하면 慶雲에 올라 萬神을 부르고 三元道君을 朝會하리라.

##### 〈校勘〉

1. 耀: 李本에는 曜로 되어 있음.

(字句解)

1) 擲: 던질 척.

##### 【各家註】

##### 膽部之宮六腑精

[梁註]: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 | 爲六腑也라 太平經에 云 積精成膏故로 膽爲六腑之精也라

##### 中有童子耀<sup>23</sup>威明

[梁註]: 文云 膽神龍曜 字威明이라하니 明勇捍之義也라

[李註]: 膽爲六腑之首而奮發有爲하니 六腑之精이 萃焉이라 童子는 膽神也니 名龍曜요 字威明이니 勇敢震作이라 天之神氣 | 振於斯하고 人之剛氣 | 決於斯하야 如龍之炫耀威光이 閃爍明晃而震湯之莫禦也라

##### 雷電八振揚玉旌

23) 李本에는 曜로 되어 있음.

[梁註]: 八方雷震은 有威怒之象也라 玉旌은 剛氣之色也라

**龍旂橫天擲火鈴**

[梁註]: 膽은 靑龍之色이요 旌旂는 威戰之具也라 火鈴者는 膽邊肉珠之象也라 怒則奮張故로 言擲也라

[李註]: 膽附肝葉하니 肝主恚怒라 雷者는 天之怒氣而電者는 雷之明光이라 天怒則雷電交作일새 雷震八方하고 電閃旌旗라 人身이 一小天地故로 云然이라 玉旌은 肺神也요 龍旂는 肝神也요 火鈴은 心神也니 肝怒則肺氣 | 亦鼓하고 心君이 亦奮하니 孟子 | 云志一則動氣하고 氣一則動志라하니 是也라 故雷電八振則玉旌이 揚閃하고 龍旂 | 橫天而火鈴擲躍이 亦隨之하야 而均勇이 往奮迅矣라

**主諸氣力攝虎兵**

[梁註]: 膽力互用하야 主於捍難故로 攝虎兵이라 外應眼童鼻柱間

[梁註]: 內指事也라 心之喜怒 形於眉目之間이라

**腦髮相扶亦俱鮮**

[梁註]: 人之震怒 髮上衝冠이라

[李註]: 膽之所主者는 何오 蓋膽은 中正之官 決斷出焉하니 膽氣 | 盈則勇而千萬人이라도 吾往矣요 膽氣 | 歉<sup>24)</sup>則怯而不能勝匹難矣라 子龍一身이 都是膽美이니 維膽大如斗라 可見氣之勇怯이 隨乎膽之盈歉而諸氣力이 皆主乎膽矣라 肺爲虎요 金爲兵이며 虎爲威武之獸요 兵爲威武之器니 非氣力之雄猛이면 誰能管攝之리오 眼肝이 屬<sup>25)</sup>怒則外應於眼而兩瞳炯<sup>26)</sup>燦하고 鼻肺 | 屬怒則肺氣 | 悖然而喘充息驟하고 亦鼓滿하며 高突於鼻柱間하고 且怒氣 | 上沖於腦則怒髮沖冠而雙皆豎烈하니 若扶之而俱沖如初發之草生意 | 勃然不可遏이면 其鮮茂也라 此 | 任血氣之勇而不制其怒性이니 乃鮮能存膽之神者면 豈體道之妙哉아

**九色錦衣綠華裙**

[梁註]: 靑錦은 東方九氣之色也라 綠華裙은 膽膜之象이라

[李註]: 天得之九하야 陽數 | 潛藏이요 人得之九하야 肝氣內藏이라 膽은 乃肝之腑故로 衣錦衣綠華色이라 裙은 下裳이니 膽居肝下故로 曰綠華裙이라

**佩金帶玉龍虎文**

[梁註]: 膽神의 威明之服飾也라

**能存威明乘慶雲**

[梁註]: 內象喻也라 思存膽神不倦則仙道可致也라 役使萬神朝三元

[梁註]: 三元道君이 各處三清之上하니 諸天神仙이 并朝宗之致也라

[李註]: 肝龍肺虎와 降龍伏虎 | 全藉膽之威武하야 制縛之라 故로 佩金帶玉而龍虎炳蔚之文이 莫非膽神以馭之矣라 學者 | 能存膽之神而威明이 竝至則道成德立하야 飛昇可致而乘彼慶雲이라 一呼百諾하고 統界萬靈하고 化爲護法하야 役使萬神而天地水官之三元이 皆相朝矣니 膽神之妙用이 如此라

**【考察】**

‘膽部之宮六腑精’에 대해 [梁註]에서는 膽胃大腸小腸膀胱三焦가 六腑인데 積精成靑하므로 膽은 六腑의 精이라하고, [李註]에서는 膽은 六腑之首로서 奮發有爲하니 六腑之精이 萃한 것이라했다.

‘中有童子耀威明’에 대해 [梁註]에서는 “膽神龍躍 字威明”이라하니 勇捍의 義를 밝힌 것이라하고, [李註]에서는 童子는 膽神이니 名은 龍躍이고 字는 威明이니 勇敢震作한다했다.

‘雷電八振揚玉旌 龍旂橫天擲火鈴’에 대해 [梁註]에서는 八方雷震은 威怒의 象이고 玉旌은 剛氣의 色이라하고, 旌旂는 威戰之具이고 火鈴은 膽周邊의 肉珠의 象인데 怒하면 奮張하므로 擲이라하고, [李註]에서는 肝主怒하고 雷는 天之怒氣이며 電은 雷의 明光이다 天이 怒하면 雷電이 交作하므로 雷震八方하고 電閃旌旗한다 人身이 一小天地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玉旌은 肺神이고 龍旂는 肝神이고 火鈴은 心神이니 肝이 怒하면 肺氣가 같이 鼓하고 心君이 같이 奮한다고했다.

‘主諸氣力攝虎兵 外應眼童鼻柱間 腦髮相扶亦俱鮮’에 대해 [梁註]에서는 膽力이 捍難함을 主하므로 攝虎兵이라하고, 心之喜怒는 眉目之間(鼻柱間)에 나타나고, 人之震怒는 髮上衝冠이라하고, [李註]에서는 膽氣가 盈하면 勇敢하여 千萬人이라도 吾往하고 膽氣가 歉<sup>27)</sup>하면 怯이 많아서 匹難도 이기지 못한다. 肺는 虎이고 金은 兵이며 虎는 威武之獸이고 兵은 威武之器라하고 眼肝이 屬怒하면 外로 眼에 應하여 兩瞳이 炯<sup>28)</sup>燦하고, 鼻肺가 屬怒하면 肺氣가 悖然히 喘充息驟하며 鼓滿하고 高突於鼻柱間하고, 怒氣가 上沖於腦하면 怒髮이 沖冠하고 雙皆가 豎烈하니 이는 血氣之勇에 치우쳐 體道之妙를 알지 못함이라했다.

25) 당을 축.

26) 뜨거운 모양 동

27) 흥년들 겸.

28) 뜨거운 모양 동

24) 흥년들 겸

‘九色錦衣綠華裙’에 대해 [梁註]에서는 靑錦은 東方九氣之色이고 綠華裙은 膽膜之象이라고, [李註]에서는 天이 九를 얻어서 陽數가 潛藏하고 人이 九를 얻어서 肝氣가 內藏하는데 膽은 肝之腑이므로 膽綠色의 衣服이라고하고 裙은 下裳이니 膽이 肝下에 있으므로 綠華裙이라고했다.

‘佩金帶玉龍虎文’에 대해 [梁註]에서는 膽神 威明의 服飾이라고, [李註]에서는 肝龍肺虎와 降龍伏虎가 모두 膽之威武에 의해 制縛되므로 佩金帶玉하고 龍虎炳蔚의 무늬가 모두 膽神으로서 馭之矣라

‘能存威明乘慶雲’에 대해 [梁註]에서는 思存膽神하여 不倦하면 仙道를 이룰 수 있다하고, [李註]에서는 學者가 膽神을 存思하여 威明이 이루어지면 道成德立하여 飛昇한다했다.

‘役使萬神朝三元’에 대해 [梁註]에서는 三元道君이 三清之上에 處하니 諸天神仙이 모두 朝會하러 모인다고, [李註]에서는 一呼百諾하고 統界萬靈하며 化爲護法하여 役使萬神이면 天地水官之三元이 모두 朝會한다하니 膽神妙用이 이와같다했다.

#### IV. 結 論

以上과 같이 研究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6章에서는 天中之岳(脾土)을 중심으로 한 心과 肺 및 津液의 通路인 舌下玄竅(玄竅)에 대해 說明하였고,

7章에서는 泥丸을 비롯한 얼굴의 眞神을 열거하고 至極한 道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 眞神을 存思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8章에서는 五臟과 膽神의 名과 字를 제시하고 이 들을 存思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9章에서는 肺神의 服裝과 功用(調氣, 形不滯, 外應鼻)에 대해 말하였다.

10章에서는 心神의 服裝과 功用(適寒熱, 和營衛, 調血理命, 外應口舌)에 대해 말하였다.

11章에서는 肝神의 服裝과 功用(主關鍵, 聰明之始, 和魂魄, 平津液, 外應眼目, 治百病)에 대해 말하였다.

12章에서는 腎神의 服裝과 功用(五臟六腑와 百節 兩耳에 津液을 補充해 줌)에 대해 말하였다.

13章에서는 脾神의 服裝과 功用(消穀散氣, 攝牙齒, 調百穀五味香, 却虛羸, 外應面)에 대해 말하였다.

14章에서는 膽神의 服裝과 功用(主氣力攝虎兵, 役使萬神, 外應眼瞳 眉間 腦髮)에 대해 말하였다.

#### 參 考 文 獻

1. 務成子(唐): 太上黃庭外景經, 上清黃庭內景經, 自由出版社, 臺北, 1990.
2. 梁丘子(唐, 名白履忠): 黃庭內景玉經註, 太上黃庭外景經, 臺北, 1990.
3. 李一元(明): 黃庭內景經, 黃庭外景經, 自由出版社, 臺北, 1993.
4. 濟圓冷謙(清): 太上黃庭內景玉經, 自由出版社, 臺北, 1992.
5. 周眉聲: 黃庭經醫疏, 安徽中醫學院, 安徽科學技術出版社, 北京, 1988.
6. 呂光榮, 吳家駿: 中國氣功辭典, 人民衛生出版社, 北京, 1988.
7. 戴源長, 李樂傢: 仙學辭典, 眞善美出版社, 臺北, 1983.
8. 李能和: 朝鮮道教史, 普成文化社, 서울, 1977.
9. 최준식: 道教史, 분도出版社, 서울, 1990.
10. 許俊: 東醫寶鑑, 大星文化社, 서울, 1981.
11. 李槌: 編註醫學入門, 大星文化社, 서울, 1981.
12. 蔡仁植: 國譯編註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4.
13. 朴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攷, 大星文化社, 서울 1992.
14. 呂洞賓 著, 李允熙 高聖勳 譯: 驪江出版社, 서울, 1992.
15. 柳華陽 著, 李允熙 譯: 慧命經, 驪江出版社, 서울, 1991.
16. 魏伯陽 著, 朱元育 李允熙 譯: 參同契闡幽, 驪江出版社, 서울, 1990.
17. 任繼愈 主編: 中國道教史 上海人民出版社, 上海, 1990.
18. 吉元昭治 著 都珖淳 譯: 道教와 不老長壽醫學, 열린책들, 1992.
19. 陳國符: 道藏源流考, 古亭書屋, 祥生出版社, 民國 64年.
20. 周易: 學民文化社, 1990.